

시드니 올림픽 세계예선대회

(7월 8~11일 • 크로아티아 포렉)



세계 각국의 강호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다.

세계평준화와 유럽세의 강한 약진



시드니 올림픽 본선 출전권 획득을 위한 세계예선대회가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크로아티아에서 벌어졌다.

한국은 남녀 각 2체급 대표가 출전해 경기를 펼친 결과 3체급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본지에서는 이 대회를 취재한 한국일보 정진황 기자로부터 대회 총평 및 경기분석과 함께 대회 이모저모를 넘겨받아 특집으로 신는다.

크로아티아 = 정진황 기자(한국일보 체육부)

총평

「세계 평준화와 유럽세의 강한 약진!」

지난 7월 8~11일까지 크로아티아 포렉의 자레나 라구나 체육관에서 벌어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세계예선대회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각 국가별로 남녀 각 2개 체급만 출전할 수 있는 올림픽 규정상 각 국가가 4체급에만 출전했는데 예상보다는 훨씬 더 올림픽 티켓이 골고루 돌아갔다.

체급별 4장까지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세계예선대회에는 73개국 233명이 남녀 각 4개 체급에서 모두 32장의 티켓을 놓고 4일간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중주국 한국이 첫날 조항미가 한장의 티켓을 획득

한 데 이어 마지막날 두장을 거머쥔으로써 모두 3장의 티켓을 확보해 간신히 선두자리를 지켰고,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대만 등 7개국이 각각 2장을, 그리고 나머지 15장은 일본, 미국, 이란, 오스트리아 등 15개국이 골고루 나눠가졌다. 두드러진 것은 유럽세의 대약진이다. 대륙별로 보았을 때 32장의 티켓 중 유럽이 18장을 확보, 50%이상을 가져갔다. 중주국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는 유럽의 절반인 9장, 나머지는 각각 팬암 3장, 아프리카 2장 등이다.

힘과 체력만 좋았던 유럽 태권도가 이제 스피드와 기량에서도 아시아권을 넘어섰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상이다. 더군다나 유럽은 오랫동안 세계 최정상에 군림해온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 한국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공격전술을 발굴해내지 않

고는 더이상 최정상의 위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대회 첫날 -67kg급에 출전한 조항미(인천시청)가 한 수 앞선 기량 끝에 1위로 출전권을 획득했다.

세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금메달리스트인 이란의 하디 사에이보네코할과 맞붙어 박빙의 승부를 펼쳤지만 아깝게 4-5로 역전패하며 올림픽 티켓을 코앞에서 놓쳤다.

한국, 시드니 올림픽 출전권 3체급 획득, 1체급 탈락

또한 세계선수권 3연패를 이룩한 김계경(에스원)과 '99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강해은(상명대)도 대회 마지막날 각각 남자 +80kg급과 여자 -57kg급에서 출전권을 따냈다. -68kg급에 출전한 신에 유용진은 8강전에서 '99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본선진출을 위한 아시아 지역예선에 출전, 이 체급 혹은 티켓을 따지 못한 다른 체급에서 준우승 이상을 해야만 4장의 티켓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징

올림픽 진출을 위해 세계의 강호들이 모두 모인 이번 대회는 선수들의 기량이 세계선수권대회 수준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선수권대회 상위 입상자들이 무더기로 예선 탈락하는 등 이번이 속출, 올림픽에 대비한 선수들의 치열한 훈련량을 가늠케했다.

'99 세계선수권대회 미들급 금메달리스트인 이란의 마지드 아플라키함세는 남자 -80kg급에 출전, 올림픽 티켓을 노렸지만 해비급에서 체급을 내려 출전한 멕시코의 빅토르 에스트라다 가리베이에 8

세계예선대회에는 4강진출자까지 올림픽 티켓이 주어지는 만큼 8강전이 사실상의 결승전이 됐다. 4강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매트에 엎드려 눈물을 쏟는 등 여타 대회에서는 보기 힘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림픽이 참가국가는 물론 선수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누구나 참가하고 싶어하는 올림픽을 향한 예선 무대라는 점에서 각국 선수진이 득점과 경고, 감점 등 심판 판정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응원 열기도 경기가 벌어질 라구나체육관을 뜨겁게 달구었다. 크로아티아와 인접한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는 대거 응원단을 보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4강 이후에는 선수들이 부상을

세계 강호들의 치열한 각축전, 이번 속출

강전에서 7-5로 패해 고배를 들었다.

홍콩에서 열린 97년 세계선수권대회 미들급 은메달리스트인 쿠바의 알트레도 에스코바 오소리오는 -80kg급에 출전했지만 독일의 파살 에누타리브에 5-4로 패해 1회전에서 탈락했고, 남자 -68kg급에서는 '99 세계선수권대회 페더급 은메달리스트인 덴마크의 조스퍼 뢰센이 역시 1회전에서 오스트리아의 북병 튜케이 갈리스크에 3-1로 패해 1회전 탈락되는 이번의 희생자가 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메달 색깔을 가능할 수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수들의 기량수준이 높았다.

전력노출을 꺼려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강호들도 이번 대회에 대거 출전, 티켓을 노렸기 때문이다.

우려, 경기 포기가 속출하면서 4강전 포기는 물론이고 결승전마저 기권을 해 8강전 이후는 마치 파장분위기가 연출됐다.

남자 -80kg급에서 덴마크의 무하메드 다마니와 남자 -68kg급에서 이란의 하디 사에이보네코할이 각각 슬로베니아의 마셀 모어와 오스트리아의 토크이 칼리스크를 각각 기권승으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경기가 치열한 남자 체급의 경우 부상위험에다 전력노출을 꺼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5~8위를 가린 것도 이번 대회의 특징. 올림픽 진출티켓이 걸려있는 만큼 도핑테스트를 위해 4강진출자 중 약물복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했다.

그러나 휴양도시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지나치게 비싼 호텔비 등 바가지가 극성을 부려 선수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경기분석

남자부

유럽의 전반적인 강세 속에 중량급은 유럽세, 경량급은 아시아세가 우세를 점하는 투기종목의 전형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경량급인 -58kg급에서는 대만과 일본, 스페인, 모로코가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고 -68kg에서는 이란이 아시아권으

■-58kg급 한국이 출전하지 않은 이 체급에서는 대만의 치슈황의 기량이 돋보였다. 돌려차기와 받아차기가 일품인 치슈황은 이스라엘, 에콰도르, 브라질 선수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라 스페인의 가브리엘 에스파르자를 11-2의 일방적인 스코어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97년 세계선수권대회 밴텀급 우승자인 치슈황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99 세계선수권대회도 불참하며 이번 올림픽 예선대회에 대비해왔다.

■-68kg급 전통적으로 중동세가 강한 이 체급에

+80kg 김제경 출전권 확보, -68kg 유용진 탈락

로는 유일하게 티켓을 가졌고 나머지 3장은 모두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가 나눠가졌다.

또 -80kg의 중량급에서는 아시아가 한장도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고 역시 독일, 덴마크, 슬로베니아가 각 한장씩 가졌으며 멕시코가 나머지 한장을 확보했다. 김제경이 버티고 있는 +80kg급에서도 유럽이 2장, 이집트가 한장을 나눠가졌다.

서 한국킬러인 이란의 하디 사에이보네코할의 독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강에서 한국의 유용진이 선전을 벌였지만 결국 역전패하며 무릎을 꿇었다. 유용진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오른발 앞차기로 하디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다. 4-4로 맞선 3라운드 10여 초를 남겨두고 유용진이 하디의 오른발 돌려차기를 받아차기로 역승했지만

시드니 올림픽 세계예선대회 대표선수 교체

남자 +80kg 박형래, 여자 -67kg 이정민 대신
세계선수권 3연패의 김제경, 조항미 출전

6월 15일 경기력향상특위서 결정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6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경기력향상특별위원회를 열고 시드니 올림픽예선대회에 출전할 대표 2명을 전격 교체했다.

이날 경기력향상특위(위원장 최영렬)는 지난 4월 시드니 올림픽세계예선대회 파견 대표선발전에서 뽑은 남자 대표 4명 가운데 남자 +80kg 박형래(도시철도공사)와 여자 -67kg 이정민(송곡여고) 대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연패한 김제경(에스원)과 조항미(인천시청)로 내보낼 것을 민정일처로 결정했다.

대표선발전을 거쳐 선발된 대표선수를 전격 교체한 것은, 지난 6월초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표선수 파견 결과 각국 선수단의 전력과 기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 선수를 교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여고생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주목받은 이정민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예선에서 대만선수에게 패해 초반탈락했고 박형래는 최근 2년간 국제대회 뿐만 아니라 국내대회에서도 우수한 경력이 없어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각국 선수단의 전력과 선수들의 기량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력향상특위에서는 남자 +80kg과 여자 -67kg에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달성한 김제경(에스원)과 조항미(인천시청)를 파견키로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있기까지는 박형래와 이정민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와 팀 감독이 태권도 종주국의 명예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기로 사전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편 경기력향상특위는 오는 12월 4일과 5일 시드니에서 열리는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경기 프레대회에 박형래와 이정민 두 선수를 대표로 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부심들은 하디의 특점만 인정해 아쉬움을 남겼다. 공격 후 넘어지는 플레이로 주심의 경고를 받는 등 번칙플레이가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했다. 기량에 비해 유용진이 경기에서 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 반면 하디는 안정되고 노련한 경기운영이 돋보였다.

■-80kg급 헤비급의 김제경을 피해 체급을 한 계단 내려 도전한 멕시코의 빅토르 에스트라다 가리베이의 실력이 돋보였다. 빅토르는 8강전에서 '99 세계선수권대회 미들급 챔피언인 아플라키갑세를 7-5로 물리치고 올림픽 티켓을 따다. 지역예선이 남아있는 만큼 이 체급에서 절대강자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특히 슬로베니아의 마셀 모어는 8강전에서 이탈리아의 마리오 데 페오를 맞아 한수 아래의 기량임에도 이른바 '무대뽕' 공격으로 경기종료 1초를 남기고 반칙패를 얻어내는 독특한 승리를 거두

고 올림픽 무대에 올랐다.

■+80kg급 김제경의 명성에 짓눌려 하나같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세계선수권대회 헤비급 3연패의 소유자인 김제경은 왼쪽 허벅지 부상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를 주무기로 돌려차기와 오른발 앞차기를 적절히 구사하며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이를 잘 극복해내 올림픽 티켓을 따다.

올림픽의 색깔은 역시 김제경과 프랑스 파스칼 겐틸의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김제경의 결승기권으로 1위에 오른 파스칼은 장신을 이용한 돌려차기가 좋고 스피드가 뛰어나 김제경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역대 전적은 월드컵과 세계대회에서 두차례 싸워 김제경이 완승을 거두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대임을 이번 대회에서도 과시했다.

여 자 부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경량급에서는 아시아세가, 중량급에서는 유럽세가 강한 성향을 보였다. 여자 선수들도 남자 못지않은 스피드와 기술수준을 과시하며 수준높은 경기를 펼쳤는데 오히려 남자보다 더 치열한 승부를 펼칠 정도로 강한 승부기질을 발휘했다.

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일리디아는 스피드가 뛰어나고 화이팅이 좋아 강해은에 밀리지 않는 박병의 승부를 펼쳐 지역예선을 통해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강해은은 4강에서 이탈리아의 크리스티아나 코르시에 3-5로 뜻밖의 패배를 당하기도 했다.

■-67kg급 조향미의 기량이 한수 위였다.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달성한 조향미는 역시 '99 세계

-57kg 강해은, -67kg 조향미 올림픽 티켓 따내

■-49kg급 이 체급에서는 미국의 케이 포의 기량이 균제일학의 수준이었다.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빠른 스피드와 힘을 무기로 정상급인 대만의 황 치아 춘을 맞아 오른발 앞차기를 거푸 성공시키며 6-1로 압승을 거두며 최정상급의 기량을 과시했다.

터키의 돈두 구벤츠 역시 '99 세계선수권대회 핀급 챔피언인 스페인의 벨렌 아센시오에 우세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올림픽에서도 두 사람과 지역예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센시오와 타이페이의 대결로 메달 색깔이 가려질 전망이다.

■-57kg급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달성한 강해은이 전반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 강한 도전이 예상된다.

강해은은 1회전에서 '99 세계선수권 대회 은메달리스트인 멕시코의 일리디아 살라자르에 3-1의 판

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인 장 후이징과 1회전에서 또 한번 맞붙었는데 후이징이 조향미의 오른발 앞차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99 세계선수권대회 웰터급 금메달리스트인 스페



▲-57kg에서 한국의 강해은은 3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1위는 터키, 2위는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인의 엘레나 베니테즈를 제치고 예선대회에 출전한 스페인의 일레인 루이즈 역시 조항미와 결승에서 맞붙었으나 조항미의 기량을 넘어서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67kg급 중량급의 강호 중국과 캐나다가 초반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99 세계선수권대회 미

들급 3위를 차지한 쉐 중은 2회전에서 크로아티아의 나타샤 베즈마르에 5-1로 완패했고 '99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인 캐나다의 도미니크 보살트도 러시아의 나탈리아 이바노바에 일격을 당하고 초반탈락하는 등 그녀의 컨디션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날 정도로 기량차가 없는 체급이다.

국제심판 김강인 인터뷰

공정한 판정으로 올림픽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공정성 위해 엄격한 통제 ... 대륙, 언어, 인종, 종교 등 고려한 심판배정



▲김강인 국제심판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앞으로 1년 2개월.

시드니 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가 앞으로 영구 정식 종목이 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공평정대한 판정이 있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크로아티아 포백에서 열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예선대회는 대회조직 위원회 등이 어느 대회보다도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결코 쉬운 판정으로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 국제심판으로 활약한 한국의 김강인 심판으로부터 판정과 관련한 여러 의문사항을 짚어보았다.

■이번 대회는 득점과 경고에 대한 판정이 다른 대회보다도 더 엄격해졌다는 각종 코치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만큼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가장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 심판들이 모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득점의 경우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가계일 때만 점수를 주도록 했습니다. 설사 반칙패로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라도 경고를 줘야할 상황이면 가져들이 경고와 감점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내릴 수 있는 평가는 아니고 각국 선수단에서 판정시비가 그치지 않았고 또 공정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사실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심판과 선수단에는 엄격한 벽이 놓여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심판은 경기장과 호텔만 왔다갔다 할 정도로 엄격한 통제하에 행동했고 자국선수나 코치와는 악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를 들면 첫날 경기에서 특정국가 선수가 감점 3점을 당했는데도 주심이 경기를 속개하다 주위

에 있던 코치들이 오히려 '중단'을 소리치는 해프닝도 있었던데요.

"각 대륙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심판을 뽑아왔는데도 경기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심판들의 경우 경기 경험이 좀더 쌓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판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대륙, 언어, 인종, 종교까지 고려한 심판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대륙선수가 맞붙는 경우 그 대륙에 속해있지 않은 심판을 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인종, 종교, 언어까지 고려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편정하기 어렵습니까.

"경기를 겨룬 선수들의 득점이 똑같은 상황에서 기량이나 파이팅도 어느 쪽도 기울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다. 난감하지요. 하지만 어찌됐습니까. 판정은 내려야 하나까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때 가장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고개를 숙이고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 안쓰러움이 더하지요.

■그와 같은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편정하니까.

"우세판정을 내릴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요. 경기의 주도권은 누가 선제공격을 많이 했느냐, 고난도 기술을 발휘했느냐, 경기매너가 좋았느냐 등이 고려됩니다.

올림픽 출전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세계예선대회로 모두 32장의 올림픽 티켓이 팔려나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올림픽 티켓은 모두 68장. 이 가운데 시드니 올림픽 주최국인 호주가 남녀 각 4체급으로 나눠진

선수수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 역시 바로 지역예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수준급 기량을 갖추고도 예선에서 강자를 만나 탈락한 일부 선수도 없지 않지만 이번 세계예선대회 입상자들이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메달색깔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남자 -68kg급에서 올림픽 티켓 확보에 실패한 한

올림픽 티켓 100장 중 이번 대회로 32장 확정 9월 지역예선에서 또한번의 기회 주어져

전종목에 출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한 국가는 9월로 예정돼 있는 4개 대륙별 올림픽 지역 예선을 거쳐야 한다.

아시아, 팬암, 유럽지역 예선은 준우승까지 올림픽 티켓이 주어지고 태권도 회원국이 적은 아프리카 예선은 우승자에 한해 티켓이 주어진다. 이번 세계예선대회에서 5-8위에 그친 선수 가운데서도 기권

국 역시 지역 예선을 통해 나머지 티켓 한장을 획득해야 한다.

한편 남자의 경우에는 세계예선과 지역예선에서 티켓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를 대상으로 4장의 와일드 카드가 준비돼 있다. 어떤 국가에 와일드 카드를 배정할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코치 김 중 기 인터뷰

올림픽 제패 위해선 정보분석과 대비책 마련해야

유럽과 중동의 맹렬한 추격에 시달려야 했던 한국은 앞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신진의 발굴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거의 기량차가 없어진 각축전 끝에 한국은 4장의 티켓 중 3장만 수확했다.

70년대 말과 80년대 초까지 세계선수권대회 뎀텀급 3연패를 달성한 김중기 수석코치는 경남대 감독을 맡다 올 3월부터 국가대표 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김중기 코치

■ 이번 대회 참가선수들의 기량수준은 어땠습니까.

"캐나다에서 열린 '99 세계선수권대회보다도 높고도 낮아 합니다. 전력노출을 이유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번엔 참가한 선수들이 많은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 올림픽에서의 전망은 어떤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보면 여자는 아무래도 한국선수의 기량이 다소 앞선 걸로 평가가 됩니다만 남자는 김계경이 버티고 있는 헤비급을 제외하고는 기량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68kg급에서는 이란, 독일 선수의 기량이 대단히 우수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메달색깔이 좌우될 정도로 기량차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추

국으로서의 체면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어떤 대비가 있어야 합니까.

"기술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이 우선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고와 감점판정을 엄격히 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공격적인 전술과 연타동작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유용진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이란의 하디 사에 이보니코할과의 8강전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지만 기세 싸움에서 눌러 자신의 기량을 100% 펼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패인은 유용진의 받아차기를 부심들이 인정하지 않은 때문인데 차고난 뒤 넘어진 것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이모저모

응원, 취재 열기로 체육관 째름

올림픽 티켓이 걸린 만큼 관중의 응원이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포함, 모두 9개국 30여 명의 기자들이 열린 취재경쟁을 벌였다.

이번 대회가 유럽지역에서 열려 유럽대륙국가 기자들이 많았는데 크로아티아를 포함, 헝가리,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신문과 방송기자들이 경기장을 떠나지 않으며 취재에 열중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기자가 취재대열에 합류했다.

응원열기는 너무 뜨거워서 가뜩이나 더운 체육관을 점동으로 만들 정도로 광적인 응원을 펼치는 국가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크로아티아와 인접한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는 대거 응원단을 보내 이채를 띠었다. 둘째날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선수와의 경기에서 판정시비가 벌어지며 두 나라 응원단에서 기쁨의 합성과 야유가 교차하며 체육관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서울 올림픽 챔프 리마스 10년만에 컴백

서울 올림픽 여자 웰터급 금메달리스트인 알렌 리마스가 10년만에 다시 컴백을 해 눈길. 서울 올림픽 당시 시범종목이던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미국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리마스는 대회 첫날 벌어진 -67kg급에 출전했다.

33살의 노장으로 정확히 11년만에 매트에 선 리마스는 '99 세계선수권대회 웰터급 2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의 미람 무스켄스와 맞붙었다. 노장답지 않은 체력과 원숙한 기량을 선보인 리마스는 무스켄스와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했지만 5-4로 석패, 1회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불꽃투혼으로 심한 부상 딛고 올림픽 티켓 따낸 김제경

이번 대회에서 김제경(에스원)의 불꽃투혼이 눈부셨다. 첫날 연습 도중 왼쪽 허벅지 인대부상으로 발을 들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극복하고 올림픽 티켓을 따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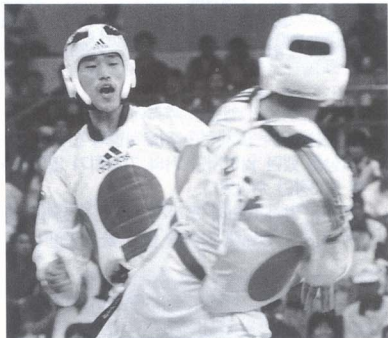
한국선수로는 가장 믿음직한 선수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코칭스태프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든 것이 바로 부상이었다. 격렬한 발차기가 오가는 경기중에 부상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었기 때문. 여차하는 날에는 티켓도 물 건너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제경은 진통제를 맞은 뒤라 감각이 무디어진 타이지만 빠른 스피드와 경쾌한 발차기는 조금도 무디어지지 않았고 매트 위를 활활 날았다.

1회전 폴란드의 폴 노박을 2-1로 어렵게 이긴 김제경은 2회전과 8강전에서 컨디션을 회복하며 잇따라 5-0의 완승을 거두고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제경은 헤비급에서는 기피선수. 멕시코의 빅토르는 한 체급을 내렸고 실사 맞상대를 하더라도 명성과 기량에 주눅이 들어 상대선수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 93년 대표로 선발된 이후 각종 세계대회에서 헤비급 1위를 도맡아온 김제경은 울 들어 대표선발전에서 고배를 드는 등 슬럼프에 빠지는 듯 했으나 이번 대회를 통해 헤비급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세계무대에서 거의 유일한 라이벌은 프랑스의 파스칼 겐틀. 96년 세계선수권대회와 97년 월드컵에서 맞붙어 각각 4-1, 2-1로 김제경이 신승을 거뒀지만 기량은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선수다.



▲김제경(왼쪽).

김제경이 결승에서 부상으로 기권을 함에 따라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올림픽에서 결국은 메달색깔을 가름하기 위해 맞붙어야 할 상대다.

김제경은 "과거 유럽선수들은 덩치만 크고 스피드나 기량이 떨어졌는데 해가 갈수록 스피드와 유연성이 좋아져 기량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며 "유럽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점차 신장과 체력을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보다는 오히려 국내대회에서 1등하기가 더 어렵다는 김제경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더욱 훈련량을 늘리겠다."며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세캐트 행운의 올림픽 티켓

남자 -58kg급에 출전한 모로코의 유네스 세캐트는 이번 대회 가장 운이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1회전과 2회전을 각각 1-0의 신승을 거두고 8강전에 오른 세캐트는 8강 대전 상대인 미국의 제이슨 토레스가 부상으로 기권하는 바람에 올림픽 티켓을 잡은 행운아.

98년 세계대학선수권대회 2위를 차지한 바 있는 강호 토레스는 2회전 상대인 베네주엘라의 루이스 가르시아와의 경기에서 한수 앞선 기량으로 6-1로 앞서나가다 3라운드에서 일격을 맞아 턱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6-2로 경기를 마친 토레스는 경기 직후 통증을 호소, 결국 헬기로 이탈리아의 미군 기지에 긴급호송되는 불운을 겪었다.

감점패 당한 마리오 20여 분간 항의

이번 대회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경기는 둘

째날 벌어진 남자 -80kg급 8강전인 이탈리아 마리오 테 메오와 슬로베니아의 마셀 모어전.

발단은 이렇다. 한수 위의 기량을 가진 이탈리아의 마리오 테 메오가 3회전까지 6-1로 이기던 상황에서 경기를 약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었다.

이미 경기를 뒤집기에는 너무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슬로베니아의 마셀 모어가 저돌적인 공격을 시도하자 마리오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거꾸 경고와 감점을 받았고 경기종료 1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마리오는 감점 2점에 경고 하나를 받았다.

이때 슬로베니아의 마셀 모어는 다시 두 팔을 내린 상태에서 마치 '때릴 테면 때려봐라'는 식의 저돌적인 무작정 대시를 하자 마리오가 주춤거리며 제차 뒤로 물러서자 흥분주심이 다시 경고를 내리고 감점 3점으로 반칙패를 선언했다.

지난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벌어진 반칙패 논란이 재현된 것.

마리오는 20여 분 동안을 매트에 앉아 판정에 항의를 하는 소동을 빚었다.

시드니 올림픽 세계예선대회 경기결과

(남자부)

■ -58kg

- 1 Chih Hsiung Huang(대만)
- 2 Gabriel Esparza(스페인)
- 3 Kiyoteru Higuchi(일본)
Youness Sekkat(말레이시아)

■ -68kg

- 1 Hadi Saeibonekholi(이란)
- 2 Tuncay Caliskan(호주)
- 3 Aziz Acharki(독일)
Claudio Nolano(이탈리아)

■ -80kg

- 1 Muhammed Dahmani(덴마크)
- 2 Marcel More(슬로베니아)
- 3 Victor Estrada Garibay(멕시코)
Faissal Ebnoutalib(독일)

■ +80kg

- 1 Pascal Gentil(프랑스)
- 2 김제경(한국)
- 3 Yahia Alam(이집트)
Colin Daley(영국)

(여자부)

■ -49kg

- 1 Kay Poe(미국)
- 2 Dondu Guvenc(터키)
- 3 Juana Wangsa Putri(인도네시아)
Xuan Mai Thi Nguyen(베트남)

■ -57kg

- 1 Hamide Bickin Tosun(터키)
- 2 Cristiana Corsi(이탈리아)
- 3 강해은(한국)
Hsu Chih Ling(대만)

■ -67kg

- 1 조향미(한국)
- 2 Ireane Ruiz(스페인)
- 3 Mirjam Muskens(네덜란드)
Sarah Stevenson(영국)

■ +67kg

- 1 Natasa Vezmar(크로아티아)
- 2 Myriam Baverel(프랑스)
- 3 Adriana Camona(베트남)
Natalia Ivanova(러시아)

태권도인의 염원

정부, 내년부터 2007년까지 태권도 성전 조성키로 결정

50만평규모 ... 1천억원 예산 투자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박지원 장관

정부는 내년부터 '태권도 성전'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6월 1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중점추진 정책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세계 5천만명에 달하는 태권도인의 수련장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내년부터 2007년까지 50만평 부지에 '태권도 성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총예산 1천억원이 투자될 '태권도 성전'은 올해

말까지 건립 후보지를 확정하고 내년 기본설계를 마친 뒤 2001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

정부의 태권도 성전 추진계획이 언론에 밝혀지자 태권도계는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태권도의 문화관광 상품화에 역점

정부는 태권도 성전 조성으로 중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앞으로 21세기 세계태권도를 선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상품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태권도 성전 건립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IMF로 위축된 경제회복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권도 성전은 태권도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상징적 시설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전세계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5천만 태권도 동호인이 중주국인 한국을 찾도록하는 정신적 요람을 건설한다는 측면에서 뜻이 깊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한국의 10대 문화상징으로 선정(문화관광부1996)되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답게 세계 156개국에서 5천만명 이상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전세계에는 약 5천명 이상의 한국인 사범이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외국인 태권

「태권도 성전」 건립된다

도 수련생들을 데리고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1972년에 지어진 국기원이 태권도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중국의 경우 무술을 애호하는 외국인인 매년 150만명 정도가 소림사를 관광함으로써 연간 15억 달러 이상의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1992년 평양에 건립한 태권도 전당은 국기원의 9배 규모인데다 지난해 초 나진·선봉 지구에 태권도 성지(관광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이의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시점에 정부에서 태권도 성전을 건립해 세계화에 성공한 태권도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1996년 12월 문화관광부가 태권도를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선정하고 이를 형상화한 캐릭터.

태권도 성전 건립 후보지 올해말 확정

50만평 규모로 건립될 계획인 태권도 성전은 올해 말 건립후보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올 하반기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태권도 성전 시설로는 경기장, 연수시설, 숙박시설, 회의장시설, 그리고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설계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성전의 위치는 태권도 동호인들이나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곳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될 예정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태권도 성전 건립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태권도계 기쁨 감추지 못해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문화의 상징인 태권도 성전을 건립해 전세계 태권도인의 정신적 메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96년 12월 26일 태권도 성전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말 갑자기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해 98년 초 대의원총회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태권도 성전 건립을 일단 2년 동안 늦추자고 결의한 바 있다.

이렇게 대한태권도협회가 추진하던 사업이 유보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김운용 회장이 취임했다.

김 회장은 태권도 성전 건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이 화합과 단결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태권도 성전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태권도 관계자들을 비롯한 태권도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분석

서울체고 김요식(왼쪽)과 경성공고 박진호가 결승전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김요식이 3-1로 승리를 거두었다.

신설된 여자부 대통령기 항방에 관심집중 경희대 최강팀 면모 자랑

제 34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6월 18~19일 · 포항실내체육관)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 34회 대통령기 대회가 지난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경북 포항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43개팀, 남대부 19개팀, 남자일반부 67개팀, 여자부 21개팀 등 모두 89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별 최강팀 자리를 놓고 박진감 넘친 5명 단체전 경기가 펼쳐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여자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고, 여대, 일반부 구별없이 이를 통합한 여자부를 신설해 경기를 치렀는데 오정희, 김유진, 박은희, 신경현, 정진영으로 구성된 경희대가 패기의 고등부와 노련미의 실업팀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며 최초의 우승기를 가져가는 감격을 맛보았다.

남자고등부는 서울체고가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고등부 최강의 자리를 고수했다. 이어 경성공고, 선인고가 각각 종합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대학부는 용인대와 경원대가 각각 결승에 올라 치열한 접전 끝에 3-2로 용인대가 역전승을 거두며 대통령기 사상 처음으로 우승기를 차지했고, 일반부는 지난해 우승팀인 삼성물산이 에스원으로 이름을 바꿔 출전,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2연패를 달성하며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했다.

대통령기 대회는 체급에 관계없이 각팀의 대표 선수 5명이 출전해 경기를 치러 3승을 먼저 거둔 팀이 승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박진감 넘친 경기를 펼쳤다.

각팀에서는 가벼운 체급의 선수들이 힘에서 밀리는 데다 득점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또, 무거운 체급은 스피드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체급 즉, 페더, 라이트, 웰터급 선수를 전진에 배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체고, 4연패의 위업 달성

서울체고가 대통령기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남고부 최강팀으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떨쳤다.

서울체고는 42개 학교가 출전한 남자 고등부 경기에서 금정고, 충북체고, 한성고, 동천고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 경상공고를 맞아 치열한 접전 끝에 3-2의 승리를 거두었다.

서울체고와 경상공고의 대결은 1차 경기에서부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을 펼쳤다.

1차전에서 서울체고 박관옥과 경상공고 정남영이 2-2 동점 끝에 정남영이 우세승을 거두어 경상공고

가 첫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2차와 3차전에서 서울체고의 김교식과 최광철이 경상공고의 박진호와 이현수를 각각 3-1로 이기며 서울체고가 2-1로 역전.

그러나 4차전에서 다시 경상공고의 기대주 김민석이 서울체고 박태열을 2-1로 이기며 승부는 다시 2-2 동점을 이루었다. 결국 마지막 5차전 경기에서 서울체고의 김재식이 경상공고의 김우수를 다양한 기술로 공격, 7-2로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서울체고가 4연패를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용인대 초반 패색 짙었으나 경원대에 3-2 역전승

대학부는 이번과 역전의 연속이었다. 신생팀인 경원대는 준결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동아대를 3-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한편 용인대는 8장에서 97년도 우승팀인 경희대를 3-2로 이기고 준결에 진출, 고려대를 3-0으로 가볍게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대학 태권도 명문팀인 한체대는 1차 예선전에서

★인터뷰

차기 국가대표 유망주로 주목

지난해 대통령기, 전국체전 우승 ... 빠른발과 받아차기 주특기

고등부 최우수선수상 김 교 식 (서울체고)

김교식은 고등부 결승에서 경상공고의 박진호를 맞아 빠른 스텝과 모션을 병행하며 받아차기에 의한 몸통공격을 성공시키는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 서울체고가 4연패의 신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김교식은 항상 경기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경기장에 들어선다.

평소 체력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인훈련 시간에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노력형이다.

빠른발과 받아차기가 주특기인 김교식의 경기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김교식이 태극마크를 달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평가할 만큼 김교식에 거는 기대가 크다.

184cm의 키에 74kg으로 단단한 체격을 갖추고 있는 김교식은 지난해 대통령기 대회 우승, 전국체전 1위, 제 2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했



▲노우중 전무이사로부터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고 있는 서울체고 김교식.

으며 올해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체고대항 체육대회에서 미들급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계명대에 3-2로 패하며 초반 탈락하는 이변을 낳았다.

대학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용인대는 경원대와 접전끝에 3-2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기를 가져가는 감격을 맛보았다.

용인대는 경원대를 상대로 두 번째 경기까지 연속 패배하여 패색이 짙었으나 이후 이태웅, 최대웅, 최진규가 각각 홍춘식, 선명수, 장세용에게 승리, 3-2 역전승을 거두고 남자 대학부 패권을 차지했다.

에스원, 영천시청 따돌리고 일반부 우승

지난해 우승팀인 삼성물산이 에스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또다시 우승함으로써 사실상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전, 현 국가대표 출신인 김경훈, 김병욱, 문대성 등 막강한 선수들을 내세운 에스원은 1차전에서 도시철도공사를 3-0으로 가볍게 이기고 4강에 올라 국

군체육부대에 기권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영천시청과의 결승전 첫 경기는 전국가대표 김민우(영천시청)가 조진호(에스원)를 3-2로 이김으로써 영천시청이 첫승을 거두었으나 이어 벌어진 경기에서 에스원의 김경훈, 김병욱, 문대성이 차례로 영천시청의 김종은, 김현용, 이상훈에게 각각 승리를 거둬으로써 3-1로 우승기를 차지했다.

여자부 최강은 경희대 - 에스원 - 용인대 순

올해부터 여자부 경기가 신설되어 최초의 여자부 대통령기 향방에 관심이 쏠렸다.

여자부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구별없이 통합해서 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각 팀별로 최강팀의 자존심을 건 환판 승부를 펼쳤다.

전, 현 국가대표들이 포진한 경희대와 고려대, 용인대, 실업팀에서는 에스원과 인천시청 등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점쳐지는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펼

친 결과 최초의 여자부 대통령기는 경희대가 가져가는 감격을 맛보았다.

경희대는 오정희, 박은희, 신경현, 김유진, 정진영의 활약에 힘입어 인천전문대, 경북체고, 한체대, 용인대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 에스원과 정상을 놓고 접전을 펼친 끝에 3-1로 승리를 거두고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했다.

경기전적

남 고부

▲결승

서울체고 3-2 경상공고

▲준결승

서울체고 3-1 동천고

경상공고 3-0 선인고

▲3, 4위전

선인고 3-2 동천고

남 대부

▲결승

용인대 3-2 경원대

▲준결승

용인대 3-0 고려대

경원대 3-2 동아대

▲3, 4위전

동아대 3-0 고려대

남 일반부

▲결승

에스원 3-1 영천시청

▲준결승

에스원 기권승 국군체육부대

영천시청 3-1 보령시청

▲3, 4위전

국군체육부대 기권승 보령시청

여자부

▲결승

경희대 3-1 에스원

▲준결승

경희대 3-1 용인대

에스원 3-0 인천시청

▲3, 4위전

인천시청 3-2 용인대

종합성적

남고부

- 우승(서울체고) = 박관욱, 김교식, 최광철, 박태열, 김재식
- 준우승(경상공고) = 정남영, 박진호, 이현수, 김민석, 김우수
- 3위(선인고) = 윤상호, 이재영, 이해민, 김사능, 양우열
- 감투상(동천고)
- 장려상(영신고)
- 우수선수상(서울체고) = 김교식
- 지도상(서울체고) = 장권

남대부

- 우승(용인대) = 정동혁, 정균, 이태웅, 최대웅, 최진규
- 준우승(경원대) = 황동기, 최원석, 홍춘식, 선명수, 장세웅
- 3위(동아대) = 박충일, 정영훈, 엄광홍, 이덕휘, 진우승
- 감투상(고려대)
- 장려상(경문대)
- 우수선수상(용인대) = 최대웅
- 지도상(용인대) = 조임형

일반부

- 우승(에스원) = 조진호, 김경훈, 김병욱, 문대성, 김동현
- 준우승(영천시청) = 김민우, 김종운, 김현용, 이상훈, 이기철
- 3위(국군체육부대) = 차용희, 고대후, 김인동, 김부권, 이순태
- 감투상(보령시청)
- 장려상(제주도청)
- 우수선수상(에스원) = 문대성
- 지도상(에스원) = 김세혁

여자부

- 우승(경희대) = 오정희, 김유진, 박은희, 신경현, 정진영
- 준우승(에스원) = 정미나, 이선희, 정명숙, 심혜영, 최미애
- 3위(인천시청) = 이지은, 신동선, 박은선, 윤명숙, 서미라
- 감투상(용인대)
- 장려상(김제시청)
- 우수선수상(경희대) = 신경현
- 지도상(경희대) = 이경호

화제의 인물

최초의 여자부 대통령기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로 뽑혀

“그 동안 지도해주신 코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200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여자부 대통령기를 경희대가 차지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대통령기 최초의 여자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로 뽑힌 신경현의 감회는 남다르다.

신경현은 올해 초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정명숙(에스원)을 누르고 국가대표가 되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기에 앞서 6월초 캐나다 애드먼튼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신경현은 국제대회 첫 출전의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예선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신경현은 이번 대통령기 대회에서는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던 것이 사실이다.

신경현은 “200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반드시 우



신경현(경희대)

승하고야 말겠다”며 다시 도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경기
분석



여고부 +67kg 결승전에서 송곡여고 윤현숙(왼쪽)과 경성여실고 한현아가 치열한 접전으로 3-3 동점까지 가는 경기를 펼친 끝에 윤현숙이 우세승을 거두었다

성균관대 · 경성여실고 2연패 달성

올림픽 경기방식으로 4체급 경기 펼쳐

제 29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단체대항 태권도대회
(6월 20~22일 · 포항실내체육관)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제 2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 올림픽 경기방식으로 경기를 치르는 유일한 대회인 협회장기대회에는 남고부, 남대부, 남자일반부, 여고부, 여자일반부 등 모두 5개부 경기에 전국에서 525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루었다.

부별 올림픽 4체급 경기가 펼쳐짐으로써 각 팀별로 최고의 경기력을 자랑하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 결과 지난해 대학부와 여고부 우승을 차지했던 성균관대와 경성여실고가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2연패의 쾌거를 이룩했다.

또한 남자고등부에서는 동성고가 금 2개로 우승을 차지했고, 남자일반부는 국군체육부대, 여자일반부는 경희대가 각각 종합우승을 거두었다.

대회 첫날 두체급 석권한 동성고, 일찌감치 종합우승 확정

남고부 경기는 대회 첫날 -58kg과 -68kg 경기가 벌어졌는데 두 체급 모두 동성고가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사실상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58kg 경기에서 동성고의 이수봉은 예선부터 얼굴 공격 등 고난도 기술을 발휘하며 차분히 득점을 올려 무난히 준결에 올랐다.

준결승전은 문성고의 최홍식과 득점을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1-1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는 힘든 한판이었다.

결승전 상대로는 선인고의 윤상호를 맞이했으나 윤선수가 준결에서 포항영신고의 박재욱에게 부상을 입어 안타깝게도 결승전 경기를 기권함으로써, 동성고의 이수봉은 쉽게 금메달을 획득하는 행운을 안았다.

상단발이 주특기인 이수봉은 이번 대회 금메달뿐만 아니라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자 "얼떨떨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수봉은 운동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체력

과 기술을 익히고, 개인운동 시간에 뒷차기 연습을 많이하는 노력형.

문일중학교 당시에 중고연맹전과 전국소년체전 우승으로 일찌감치 기대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동성고에 진학한 후 이렇다할 기록을 내지 못하다가 이번에 체급 정상에 올라 가능성을 엿보였다.

-68kg 경기에서는 동성고의 엄태형과 협성고 강용길이 준결에서 오성고의 장재민과 의정부공고의 박채호를 각각 판정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득점을 주고 받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친 끝에 3-2로 엄태형이 승리를 거두었다.

-80kg 경기에서는 선인고의 이재형이 결승에서 한성고의 김기호를 맞아 6-3의 큰 득점차로 승리를 거두며 체급 정상에 올라, 선인고가 종합 2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마지막날 +80kg 경기에서 강원체고의 최승문은 문성고의 윤승환을 맞아 4-2로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한 데 힘입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승팀 성균관대 정상 지켜 2연패

남자대학부 경기는 성균관대가 지난해에 이어 정상 차지함으로써 2연패를 달성했다.

남자대학부 경기는 마지막날 경기까지도 승부를 점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의 연속이었다.

대회 둘째날 벌어진 대학부 2체급 경기 중 -58kg 경기는 경희대의 장원모가 결승에서 상명대의 정우대를 맞아 3-2 판정승을 거두었고 -68kg 경기에서는 성균관대의 김동원이 용인대의 김기성을 맞아 1-0 판정승을 거두었다.

대회 마지막날 치러진 -80kg 경기에서는 계명대의 성지민과 성균관대의 이남일이 치열한 접전 끝에 2-2 동점을 이루어 승부를 가리기 어려웠는데 성지

민에게 우세승이 선언되었다.

한편 +80kg 경기에서는 인천전문대의 이정민이 예선에서 전 국가대표 박천덕을 3-3 동점 끝에 우세승을 거두는 이벤트를 일으키며 결승까지 올라 성균관대 이재성의 부상으로 기권승을 거두며 체급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경희대, 성균관대, 계명대, 인천전문대가 각각 1개씩의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종합순위에는 은메달수로 가려지게 되었는데 성균관대가 금 1, 은 2개로 지난해에 이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계명대가 금 1, 동 2개로 종합 2위, 경희대가 금 1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국군체육부대, 에스원 문대성의 부상으로 종합우승

남자일반부는 국군체육부대가 에스원을 누르고 우승기를 차지했다.

국군체육부대는 -58kg 경기에서 전국가대표로 '96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유명택이 뒷차기 등을 성공시키며 결승에 올라 영천시청의 이기

철을 4-1로 크게 이기고 첫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68kg 경기에서는 에스원의 김동현이 결승에서 국군체육부대 김인동을 맞아 5-2로 승리를 거두었고, -80kg 경기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류근무가 국군체육부대의 김부권에게 4-3으로 지고 있고 있는 상황

에서 김부권이 경고로 -2점을 감점당해 3-2로 역전 승을 거두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국군체육부대, 에스원,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금메달을 1개씩 획득한 상황에서 종합순위를 결정하는 마지막 +80kg 경기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주목됐다.

국군체육부대의 차윤희와 에스원의 문대성이 각각 결승에 오르자 대부분 문대성이 쉽게 우승을 거

둘 것으로 예상했으나, 문대성이 2회전에 3-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함으로써 승리는 국군체육부대로 넘어갔다.

이로써 금 2, 은 2개를 따낸 국군체육부대가 종합 우승, 2위는 금 1, 은 1, 동 2개를 따낸 에스원, 3위는 금 1, 동 2개를 따낸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차지했다.

경성여실고 2연속 우승 차지

여고부는 지난해 협회장기 우승팀인 경성여실고와 지난 6월 경희대 총장기를 휩쓸며 종합우승을 차지한 수내고, 지난 5월 중고연맹회장기 우승팀인 송곡여고가 여고부 정상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49kg 경기에서 경성여실고 송윤희는 고양종고 성정화를 맞아 5-2 판정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이어 벌어진 -57kg 경기에서 수내고의 조선미는 유연성과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8강에서 서울체고의 양선회를 6-1로 크게 앞서 RSC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올라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는 리라공과 윤성희에게 우세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고양종고 김민아의 결승전은 치열한 접전 끝에 2-1로 승리를 거두어 체급 정상에 올랐다.

-67kg 경기에서는 송곡여자정보산업고의 배은주가 고양종고 전경아를 2-1 판정승으로 결승에 올랐고 강화여중고 엄정화가 부산체고 김수옥을 7-6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 정상을 놓고 격돌을 벌였는데 1-1 동점 끝에 배은주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마지막 +67kg 경기에서는 송곡여고 윤현숙이 경성여실고 한현아를 맞아 3-3 동점까지 가는 박진감 넘친 경기를 펼친 끝에 우세승을 거두었다.

막상막하의 기량으로 여고부 최강팀을 가리기 힘들었는데 경성여실고가 금 1, 은 1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수내고와 송곡여고가 각각 금 1개로 동점이었으나 8강에 2명이 진출한 수내고가 준우승, 송곡여고가 3위를 차지했다.

“여자 최강팀” 자존심 건 승부 끝에 경희대 승리

여자일반부는 경희대와 에스원이 여자부 최강팀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경희대는 4명의 출전선수 모두 입상하는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여자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했다.

전 국가대표 장정은이 -49kg에서 상명대의 오미니를 맞아 3-1로 제치고 체급 정상에 올랐고, -67kg에 출전한 정진영이 에스원의 이선회를 맞아 빠른발과 받아차기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가운데 1-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57kg에 출전한 남보라는 결승에서 에스원의 정미나와 정상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득점을 주고 받는 끝에 3-2로 정미나가 승리를 거두었다.

+67kg 경기에서는 에스원의 정명숙이 준결에서 경희대의 박은회를 3-2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용인대의 윤현정과 겨룬 끝에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2-1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에스원과 경희대는 각각 2체급씩을 석권하며 여자 최강팀의 면모를 자랑했는데 은 1개와 동 1개를 추가한 경희대가 종합우승, 은메달 1개를 추가한 에스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인천시청은 -57kg에서 윤명숙이 동메달을 따내는 데 그쳤다.

시상식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경기력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한 팀의 지도자들에게 지도상이 수여되었는데 동성고 이철주 감독, 성균관대 김범수 감독, 국군체육부대 황영갑 감독, 경성여실고 권오민 코치, 경희대 최영렬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매 경기마다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체급 우승과 함께 팀을 우승으로 이끈 동성고 이수봉, 성균관대 김동연, 국군체육부대 유영택, 경성여실고 송윤희, 경희대 정진영이 각각 부별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입상선수명단

남 고 부	남 대 부	남 일 반 부	여 고 부	여 일 반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kg • 1 이수봉 동성고 • 2 윤상호 선인고 • 3 최홍식 문성고 박재우 영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kg • 1 장원모 경희대 • 2 정우대 상명대 • 3 문정훈 동아대 미성수 계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kg • 1 유영택 국군체육부대 • 2 이기철 영천시청 • 3 김천규 가스공사 최만용 에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kg • 1 송윤희 경성여실 • 2 성정화 고양중고 • 3 주민영 효성고 김수경 목포상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kg • 1 장정은 경희대 • 2 오미니 상명대 • 3 김명례 광산구청 윤송희 한국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kg • 1 임태형 동성고 • 2 강용길 협성고 • 3 박재호 의정부고 정재민 오성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kg • 1 김동연 성균관대 • 2 김기성 용인대 • 3 진우승 동아대 허승일 중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kg • 1 김동현 에스원 • 2 김인동 국군체육부대 • 3 고재필 제주도청 석운용 도시철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kg • 1 조선미 수내고 • 2 김민아 고양중고 • 3 김현미 목포상고 윤성희 리라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kg • 1 정미나 에스원 • 2 남보라 경희대 • 3 함상우 인천전문대 윤명숙 인천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kg • 1 이재영 선인고 • 2 김기호 한성고 • 3 변재준 충북체고 전주환 분당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kg • 1 성지민 계명대 • 2 이남일 성균관대 • 3 홍춘식 경원대 이기선 용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kg • 1 류근우 가스공사 • 2 김부권 국군체육부대 • 3 이상훈 영천시청 김경훈 에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kg • 1 배은주 송곡여정산고 • 2 엄정화 강화여중고 • 3 김수옥 부산체고 전경아 고양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kg • 1 정진영 경희대 • 2 이선희 에스원 • 3 양춘희 김제시청 장지원 한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kg • 1 최승문 강원체고 • 2 윤승환 문성고 • 3 김성근 금정고 장두상 한성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kg • 1 이정민 인천전문대 • 2 이재성 성균관대 • 3 천희라 계명대 류승강 상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kg • 1 차용희 국군체육부대 • 2 문대성 에스원 • 3 구기정 도시철도공사 김정규 가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kg • 1 윤현숙 송곡여고 • 2 한현아 경성여실고 • 3 임희수 영영여정고 김순기 충북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kg • 1 정명숙 에스원 • 2 윤현정 용인대 • 3 박은희 경희대 권지희 고려대

증 입 성 적

<p>남 고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승 = 동성고(금 2) ■ 준 우 승 = 선인고(금 1, 은 1) ■ 3 위 = 강원체고(금 1) ■ 감 투 상 = 한성고(은 1, 동 1) ■ 장 려 상 = 흥해공고 ■ 우수선수상 = 동성고(이수봉) ■ 지 도 상 = 동성고(이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선수상 = 성균관대(김동연) ■ 지 도 상 = 성균관대(김범수) 	<p>남 일 반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승 = 국군체육부대(금 2, 은 2) ■ 준 우 승 = 에스원(금 1, 은 1, 동 2) ■ 3 위 = 한국가스공사(금 1, 동 2) ■ 감 투 상 = 영천시청(은 1, 동 2) ■ 장 려 상 = 보령시청 ■ 우수선수상 = 국군체육부대(유영택) ■ 지 도 상 = 국군체육부대(황영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위 = 송곡여고(금 1, 상위체고 +67kg) ■ 감 투 상 = 송곡여정산고(금 1) ■ 장 려 상 = 고려실고 ■ 우수선수상 = 경성여실고(송윤희) ■ 지 도 상 = 경성여실고(권오민·코치)
<p>남 대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승 = 성균관대(금 1, 은 2) ■ 준 우 승 = 계명대(금 1, 동 2) ■ 3 위 = 경희대(금 1, 8강 1명 / 16강 1명) ■ 감 투 상 = 인천전문대(금 1, 8강 1명) ■ 장 려 상 = 군장대 	<p>여 고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승 = 경성여실고(금 1, 은 1) ■ 준 우 승 = 수내고(금 1, 8강 2명) 	<p>여 일 반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승 = 경희대(금 2 은 1, 동 1) ■ 준 우 승 = 에스원(금 2 은 1) ■ 3 위 = 용인대(은 1, 8강 2명) ■ 감 투 상 = 상명대(은 1, 8강 1명) ■ 장 려 상 = 광산구청 ■ 우수선수상 = 경희대(정진영) ■ 지 도 상 = 경희대(최영렬) 	



PART ① 금메달 제로에서 시작한 스포츠 진흥정책

21세기의 스포츠 강국을 노린다!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1956년의 멜버른 올림픽 이래 44년 만에 남반구인 호주에서 두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은 호주가 21세기에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호주가 꾸준히 힘을 기울여 온 스포츠 진흥정책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던 '76 몬트리올 올림픽 후 스포츠의 부흥에 힘을 쏟기 시작한 호주의 스포츠정책을 소개한다. <주진언 옮김>

금 하나 못땀던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호주는 건국 200여 년의 비교적 역사가 짧은 나라이긴 하지만 독립 후 스포츠가 국가의 독자성을 형성해왔다고 할 만큼,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종목에서 다수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세계챔피언을 배출해 왔다.

그러면서도 호주의 국제경기대회에서의 활약은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수를 기준으로 하면 56년의 멜버른 올림픽의 금메달 13개를 피크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76년의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거어코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여기에 호주의 스포츠계는 물론 국민전체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메달 획득수는 표 1)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 경기력이 쇠퇴하는 원인

<표 1> 호주의 올림픽 메달 획득수

개최년도	개최지	금	은	동	합계	순위
52년	헬싱키	6	2	3	11	9
56년	멜버른	13	8	14	35	3
60년	로마	8	8	6	22	5
64년	도쿄	6	2	9	17	8
68년	멕시코	5	7	5	17	10
72년	뮌헨	8	7	2	17	6
76년	몬트리올	0	1	4	5	-
80년	모스크바	2	2	5	9	불명
84년	로스앤젤레스	4	8	12	24	13
88년	서울	3	6	5	14	15
92년	바르셀로나	7	9	11	27	10
96년	애틀랜타	9	9	23	41	7

(순위는 금메달 수 기준)

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호주의 활약은 타고난 체력과 우수한 환경에 의한, 소위 '자연적인' 천성의 소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른 외국은 그 사이에 본격적이고 과학적으로 선수를 강화하기 시작해 결국 추월 당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반성에 근거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정부의 정권교체가 잦고, 또한 정책면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충분하고 일관된 스포츠 진흥정책 및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밝혀졌다. 그로 인해 국제수준에서 활약하거나 가능성을 가진 엘리트 선수들은 보다 좋은 경기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국제무대에서의 쇠퇴 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스포츠강국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몬트리올 올림픽 직후에 스포츠계 전체가 단결하여 '호주스포츠연합(CAS)'을 설립하였다.

연방정부에 확고한 스포츠정책의 확립과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80년에는 '스포츠마스터플랜'을 제출했다.

이것을 받고 연방정부는 같은 해 수도 캔버라에 있는 '국립스포츠센터'의 정비를 충실히 하는 일환으로 '호주 스포츠 연구소(AIS)'를 설립할 것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해 오픈하였다.(약칭의 AIS는 영문명 The Australian Institute of Sports의 약자를 땀으며, 직역하면 '호주 스포츠 연구소'가 된다.

그 목적과 기능, 내용은 분명히 우리의 태릉선수촌과 같은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89년에는 국민의 스포츠 참가 증대와 엘리트 스포츠의 중점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호주 스포츠 커미션(The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 ASC)'이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ASC는 AIS를 비롯한 국립 스포츠센터의 모든 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그와 동시에 경기단체 등 스포츠관계기관의 국가재원배분 결정과, 정부가 결정한 스포츠정책을 실천하는 책임을 갖는 특수법인 조직으로 자리잡고 호주 스포츠계 전체를 통괄하고 집행하는 최고기관이 되었다.(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정부주도하의 범국가적인 노력에 의해,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20년이 지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에서 호주는 현저히 향상된 성적을 올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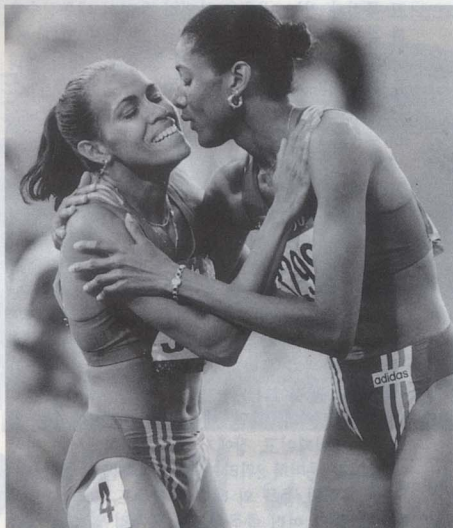
총획득메달수로 보면,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참가국 중 5번째이고, 장애인 올림픽대회에서는 미국에게 약간 못미쳐 2위라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또한 올림픽 종목 외 테니스와 골프, 크리켓, 모터사이클 등의 여러 종목에서도 세계적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이 금메달 제로라는 수모의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20년 동안 호주 스포츠의 눈부신 변모는 다른 여러 나라의 방향책정에 대단히 유용한 검토자료가 될 것이다.

< 호주 스포츠 행정구조 >





▲여자육상의 발전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를 진흥하고 있다

몬트리올 올림픽 후 호주에서는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스포츠 진흥에 앞장서면서 재정상 자금이 붙어났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끌고 나갔는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 가 될 것이다.

호주에 있어서 스포츠 부흥은 국제스포츠 무대의 성공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었다. 학교체육에 있어서의 확고한 기초발전과, 보다 널리 국민에게 '평생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것에 열심히 노력하였다.

즉, 스포츠 구성을 톱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로 생각하여 그 토대가 될 하부구조를 중시하고, 하부구조의 발전을 토대로 톱을 보다 높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멋진 결과를 낳게 되었다.

▲호주국민의 약 36%가 스포츠클럽 멤버로 등록해 있다.

▲학교체육이나 클럽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아동들의 수가 과거 10년 사

이 11% 증가했다.

▲최근 전국조사에 의하면 성인인구의 약 29%가 이런저런 스포츠 이벤트에 매주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의욕에 찬 스포츠정책과 막대한 예산

이런 발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에 의한 것일까. 정부는 내셔널 스포츠조직을 지원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호주 스포츠 4개년 계획을 세웠다. 예산도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4년으로 나눠 세웠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으면 4년간은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다.

과거 두 번의 올림픽(서울에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에서 애틀랜타)과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등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89~92년 '넥스트 스텝·Next Step' 프로그램 : 예산 2억 1,700만(단위는 모두 호주 달러)

▲93~96년 '기세를 멈추지 말라·Maintain the Momentum' 프로그램 : 예산 2억 9,300만
'기세를 멈추지 말라' 프로그램의 중간점이 되는 1994년에 2000년 올림픽 개최지가 시드니로 결정되었다. 그 후 정부는 두 개의 방침을 세웠다.

▲'기세를 멈추지 말라' 프로그램은 애틀랜타 올림픽까지 계속한다.

▲시드니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의 팀 준비로 새로이 6년 동안 1억 3,500만 달러의 예산을 올림픽선수강화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소프트볼은 애틀랜타 올림픽 3위.



예산, 방침 모두 4개년의 장기적 전망을 가진 계획으로 선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 4개년 계획의 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톱 선수들만이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스포츠발전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예외될 수 없으므로 호주국민이 모두 보다

환경을 만들어 스포츠의 장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플레이하고, 그래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교육부가 주도가 되어 대대적으로 일으킨 것이 '오지 스포츠'라고 하는 청소년 스포츠 진흥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아래 체계적 시스템 구축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 스포츠로 발전시켜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 스포츠'의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강화·발전의 대상은 톱 레벨을 중심으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잡고 있다.

프로그램이다.(아래 그림 참조)

이 프로그램은 3살에서 20살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말하자면 평생 스포츠 이념과 엘리트 스포츠 목표의 점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린이의 발육에 맞추어 승패를 떠나 스포츠를 하는 기쁨을 맛보고,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효과적으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스포츠를 사랑하는 활발한 청소년을 육성하여 간접적으로 선수로 도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86년에 출발한 이래, 이 양면에서 많은 성과를 올

오지 스포츠(AUSSIE SPORTS)

오지(AUSSIE)란 호주를 가리키는 속어다. 평생 스포츠를 이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많은 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포츠를 항상 가까이 대하는

86년에 출발한 이래, 이 양면에서 많은 성과를 올

< 오지 스포츠 >

스포츠 스타트

3~12세 아동 대상 / 스포츠에 대한 흥미 유발하는 동기부여 프로그램



스포츠 잇

6~12세 아동 대상 / 춤추기, 치기, 던지기 등의 기본 기술을 지도



준비 출발!

용구, 규칙을 이용한 간단한 스포츠 소개



스포츠 편

중고생 대상 / 초등학교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봉사활동으로 참가하는 자리 마련

스포츠 서치

중고생 대상 / 자신에 맞는 스포츠를 발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공



액티브 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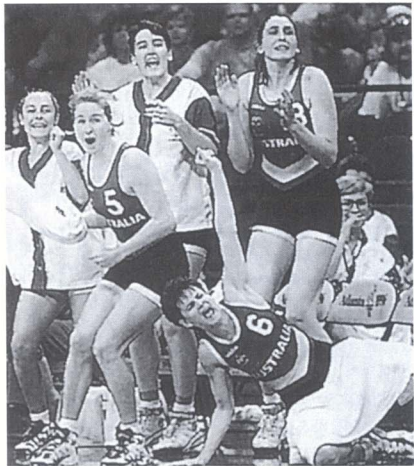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 참가 장려



CAPS

14~20세 대상 / 장래 스포츠 지도자와 스포츠 자원봉사자 코치 양성





▲여자농구 애틀란타 올림픽의 동메달.

리고 있다. 10년이 경과한 현재, 96%의 학교가 정규 커리큘럼 혹은 교과외 활동에 넣고 있다. 오지 스포츠의 프로그램은 7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1. 스포츠 스타트(Sports Start)

이것은 스포츠에 대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며, 3살부터 12살까지의 유아나 아동이 부모나 가족과

3. 준비, 출발!(Ready Set Go)

이제까지 습득한 기능을 사용하여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게임을 준비한 것. 통상의 게임규칙이나 용구 등을 간략화 하거나 코트를 축소하여 각각의 발육에 맞도록, 또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과 재미플레이를 강조하고 단계를 좋아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 50종류의 간이 스포츠(네트볼, T볼 등)를 개발하고 있다.

4. 액티브 걸즈 캠페인(Active Girls Campaign)

말 그대로 소녀들에게 스포츠를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활동이다. 여중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좀더 스포츠의 좋은 점을 알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TV 등의 매스컴을 총동원하여 호소하고 있다.

5. 스포츠 서치(Sports Search)

스포츠를 떠나거나 포기하기 시작하는 (드롭아웃)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카운슬링 프로그램이다. 개인의 체력, 운동능력, 흥미, 관심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스포츠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각종 스포츠의 설명과 가까운 센터, 수속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6. 스포츠 펀(Sports Fun)

이것은 과외활동이나 커뮤니티 스포츠활동의 기회가 없는 초등학교를 위한 방과후용 스포츠 프

유아기부터 스포츠에 친숙하게 하는 '오지 스포츠' 장애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실행

함께 놀면서 스포츠를 배우는 것, 기본적인 몸의 움직이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보적인 운동에서 간단한 게임까지 포함되어 있다. 유치원이나 보육원,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다.

2. 스포츠 잇(Sports It)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던지고 차고 치고 쫓고 뛰고 달리는 등의 기본적인 운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재 프로그램이다. 작은 그룹에서 행하는 중목을 설정하고, 모두에게 찬스가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램이다. 그와 동시에 같은 지역내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자원봉사 코치로 스포츠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활동을 통하여 리더는 책임감이나 리더십에 관하여 배우고, 초등학생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스포츠활동의 무대가 되고 있다.

7. 캡스(CAPS)

이것은 스포츠로의 도전(Challenge), 달성(Achievement), 지도자로의 길(Pathways)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오지스포츠의 앞의 단계를 졸업한 19~



▲남자 농구는 시드니 올림픽 유망종목.

20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가 아닌 스포츠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코치만이 아니라 심판, 이벤트의 계획, 매니지먼트 등, 보다 폭넓게 배울 기회를 얻는다. CAPS는 3단계의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최종과정을 패스하면 ASC로부터 스포츠 지도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오지 스포츠를 학교, 스포츠클럽, 커뮤니티가 일체가 되어 추진해 가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것은 '스포츠링크'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이며, 92년도에는 64명의 전임스태프가 8개 주(州)의 전문 담당국에 배치되어 있다.

오지스포츠는 개시 이래 국내의 조직, 단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이 스포츠는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기술을 억지로 가르치는 것보다 스포츠를 하는 것이 매우 즐겁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적극성이 유지되고, 능력이 발달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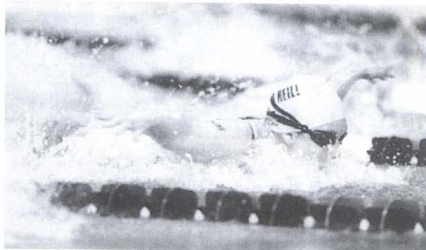
또한, 일찍부터 지도자로서의 관심을 갖게 하여 경험을 쌓게 하고 지도자 양성 제도로 이끌어 가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평생 스포츠는 환경조성에 힘써

스포츠 수준 향상에는 질 높은 지도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인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연간 약 3,000명이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오지 스포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단계인 레벨 0에서 프로나 전문 선수를 지도하는 레벨인 1~3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IS 인스트럭터는 전원 레벨 3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또 내셔널 코치 장학금 제도가 있어 연간 30명이 AIS나 주(州) 기관에서 지도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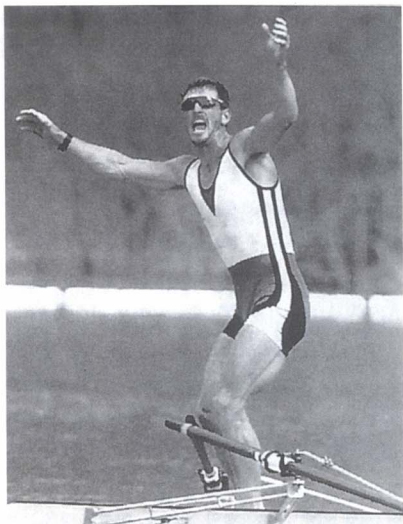
평생 스포츠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시설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나가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평등하게'란 의미에는 신체장애자나 고령자, 원주민족, 또 오지 스포츠를 접했던 소녀나 여성도 포함된다. 그 중에서 신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오지 에블'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ASC 프로그램으로 연간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코칭 프로그램이나 AIS 장학생 제도 등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그 성과는 앞의 장애자 올림픽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수영에서 금메달 딴 오블.

호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란 일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2000년은 중간지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도 계속 발전해 가기 위해 '2000 플러스'란 타이틀 아래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 자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언제나 특별히 모든 것이 스포츠에 집중되긴 하



▲조정은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

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예산이나 기세도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호주는 지금부터 그 점을 의식하면서 그 이후에 더 안정된 스포츠 대국으로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라미드 밑바닥과 정점의 연결

호주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20년이란 세월의 결과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이다.

또 이 시스템이 어느 나라에서나 다 통용될 수도 없다. 하지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과 효율에 대해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볼 계기는 될 것이다.

무엇보다 당장 눈앞의 결과에 쫓겨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호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계획,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전체론적 접근과 톱 스포츠와의 융합 등은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제공방법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스포츠를 즐기는 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PART② 스포츠 연구소를 찾아간다

AIS가 호주를 강하게 만들었다!

바다에 둘러싸여 1년 내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후를 갖춘 호주는 원래는 수영 등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독일 등이 철저한 선발제와 스포츠의학·과학화로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단번에 올림픽 정상의 자리에서 추락해 버렸다.

그런 호주가 최근 빠른 속도로 옛 기세를 회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나라에 따라 운영되는 통칭 AIS의 탄생에 있다고 한다.

스포츠 정예집단이 밥맛으로 트레이닝에 힘쓰는 AIS는 대체 어떤 곳인가?

‘스포츠, 교육, 일’ 이 AIS의 방침

이 연구소는 81년 설립되었다.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립을 준비해 81년 완성, 활성화를 시작하였다.

연구소에서는 현재 우수선수과 아직 톱으로서의 실력은 없더라도 젊고 장래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는, 잠재성이 있는 선수들을 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수는 실력 있는 코치의 지도를 받는 것 이외에



▲학생선수는 공부도 해야 하는 것이 AIS의 방침.

도 이곳 기숙사에 살면서 스포츠 영양학 전문가가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아직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곳 연구소에서는 가

까운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연구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학교교육이 소홀해지리란 염려는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선수가 학교에 다니거나 일을 갖는 것을 이 연구소에서도 장려하고 있다.

단순히 스포츠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스포츠 선수생활을 끝내더라도 그 후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스포츠 연구소에서는 '스포츠, 교육, 일'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설 내에서도 필요한 일자리를 찾아내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학생은 일반공모제로

이 시설의 장학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지원서를 코치에게 내면 된다. 그러면 코치는 그 중에

AIS란 어떤 곳인가?

■ 캔버라의 AIS에서 트레이닝하고 있는 스포츠는 농구, 수영, 체조, 보트 경기, 레슬링, 수구, 육상경기, 축구, 배구, 사격, 복싱, 로드 사이클링 등이다.

■ 96년에는 전체 585명의 우수선수가 장학생으로 AIS에 들어왔다. 이 장학제도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연장되는 선수도 있다. 캔버라 시설 내의 기숙사에는 항상 150명 정도의 선수가 살고 있는데, 캔버라 시내에도 100명 이상이 각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 코치수는 전체 약 120명 정도(96년 기준). 그 외 디렉터, 홍보 비서 등 일반직을 포함하면 360명 정도의 스태프가 캔버라에서, 100명이 다른 주의 AIS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 AIS 내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 1)수영과 수구 : 50m용과 25m용 수영장. 강화 & 조절 체육관. 회복을 위한 헬스 시설
- 2)농구와 넷볼 : 실내코트 6개. 이 코트는 농구, 핸드볼 코트로도 사용가능.
- 3)체조경기 : 트레이닝 홀
- 4)축구 : 잔디구장 4개, 인조 구장 1개, 인조잔디 트



▲호주의 태릉선수촌이라 할 수 있는 AIS의 전경.

레이닝 홀.

- 5)육상경기 : 경기용 모든 육상트랙
- 6)보트 경기 : 수상 인터내셔널 코스 1개, 45정 수용 가능한 보트 창고, 강화 & 조절 체육관, 코칭용 보트
- 8)정. 정신적 휴식을 위한 플로팅 탱크 1개
- 7)레슬링 : 실내 시설
- 8)선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실내 테니스 코트
- 9)각종 국내외 토너먼트에 사용되는 6000명 수용 가능한 실내 경기장
- 10)25명 정도에서 150명 수용 가능한 각종 회의실.
- 11)스포츠 과학센터 & 스포츠 의학센터 :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마사지, 스포츠 영양학,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이 상임.



는 여러 지방에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는 거기서 훈련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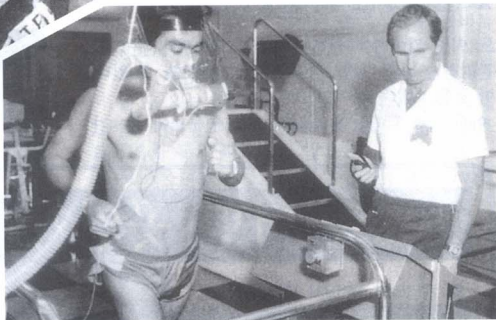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가 선수를 뒷받침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물리요법 전문가, 마사지사, 의사, 스포츠 심리학자 등 스포츠에 필요한 각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곳 캔버라에 살고 있

▲AIS에서는 일도 알선하고 있다. 관내의 안내는 선수들의 일 가운데 하나.

서 적당한 선수를 추천한다. 그리고 별도의 테스트를 치르거나 어느 정도 수준의 대회에서 기록과 성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한번 들어온 학생은 종목에 따라 오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1~2년 정도이다. 또 먼 지방 학생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살면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단기 집중훈련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AIS



▲스포츠과학 스태프가 중심이 되어 선수의 체력 측정.

코치에도 장학제도

우수선수를 낳기 위해선 우수코치가 필요

좋은 코치가 없으면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없다는 생각 아래 젊은 코치들이 유명 코치들 아래서 지도요령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원래부터 코치의 수준은 높은 나라였지만 국가의 경제적 뒷받침 아래서 코치 공부할 수 있는 이 환경은 코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북돋아 지금과 같이 지도자가 풍부한 나라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체조경기과 같이 역사가 짧은 스포츠에 관해서는 외국 코치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현재 체조경기과 올림픽 내셔널 코치인 쥘리안 티안이 여기서 코치생활을 하기 시작한 데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중국에서 체조에 쫓겨 지내던 그녀는 남편이 호

주로 이민을 가져와 하자, 하는 수 없이 미지의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 호주 이민권을 취득했다.

젊었을 때 체조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홀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스포츠에서는 완전히 손을 댄 생각이었다.

그러나 AIS는 컴퓨터를 이용해 그녀의 존재와 사는 곳을 찾아내 끈질긴 설득 끝에 AIS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다.

역사와 기반이 없는 종목에 관해서는 외국에 도움을 청하는 유연성을 가진 호주. 금전적 투자에 이런 사고방식까지 더해져 지금은 AIS의 존재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각국에서 코치를 지원하는 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으면서 선수들을 관리해 주고 있다.

또 AIS에서는 28종의 스포츠를 지도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올림픽 종목, 그 중에서도 2000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고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향한 새로운 강화 프로그램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농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준 높은 해외 경기에 참가시키기 위해 강화 비용을 높이 책정했고, 수영도 원래 금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시드니에 초점을 맞춘 새 프로그램과 강화비를 높였다. 또 국내에 내셔널 스위밍 리그를 설립하여 국내에서 수준 높은 토너먼트를 열 수 있게 자금을 책정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는 시드니 올림픽을 치르고 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호주로서는 지금 행하고 있는 방향이 바르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앞으로 각 주(州)의 시설과도 더욱 친밀한 연계를 이루어, 더 나은 스포츠 과학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

.....

호주식 훈련법

무리 않고 모든 것 본인 의지에 맡겨

AIS가 다른 나라의 훈련법과 다른 것은, AIS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AIS는 캔버라에 시설의 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를 떠나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오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루마니아나 독일과 같이 스카우트가 초등학교를 찾아가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선수를 픽업해 오는 제도와는 사뭇 다르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한다는 자유로운 방법이 호주에는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랄 수 있다.

"호주는 자유로운 나라이다. 국민성 자체가 무슨 일이나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한 코치는 말한다.

원래 18세를 넘어서면 부모를 떠나 자립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 자립심을 갖는 것이 선수로서 첫 스타트가 되는 것이다.

코치의 역할은 그 선수의 베스트를 이끌어내는 일로, 선수는 그 코치의 힘을 빌어 스스로 신장해 나가게 된다.

뭐라 해도 AIS가 톱 선수를 지향하는 선수들의 큰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오면 최고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AIS에 들어오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다."고 올림픽 체조선수 루스 모니스는 말한다.

근성만으로는 불가능

스포츠 과학화는 필수사항

AIS의 또 하나 자랑거리는 스포츠 과학화를 이용한 근대적 지도법이다. 시설 내의 스포츠 사이언스 & 메디컬센터에는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마사지 전문가 등 70여명이 상임해서 언제라도 선수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욕에만 넘쳐 구분별하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 전후의 트레이닝 강도 조절, 큰 경기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컨디션 만들기 등을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해 준다. 또 선수의 체력테스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근육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장애가 있는 자에게는 치료뿐만 아니라, 어느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동작이 빠지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체역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트레이닝까지 실시한다. 정신적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에는 즉시 스포츠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식사는 영양사가 짠 식단 중에서 자신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체조와 같이 특별한 다이어트가 필요한 경기에서 쉽게 일어나는 거식증 같은 것도 이들 전문가의 힘으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환경 체인바라는 방에서는 더운 기후, 습한 기후 등 경기 예정지의 환경과 비슷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특수 상황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집중해서 훈련한 후의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 플로팅 탱크(특수한 액체에 떠서 운동을 완전히 편하게 하는 것) 등 휴식시설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무예를 사랑하는 태권도인들의 만남

..... 경원대학교 태권도 동아리 - 무사태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가는 경원대학교 캠퍼스의 정경.

제법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 속에서 여기저기 나뭇잎은 대자보는 농촌 봉사활동을 알리는 글과 각 동아리 여름행사로 학생들을 손짓하고 있다. 시험에 대한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활기찬 움직임에 학교는 강의실보다는 동아리방이 더 떠들썩한 분위기다.

각 동아리마다 이 '휴지기'를 어떻게 하던 말 차게 보낼 것인가를 궁리하는 표정이 역력했는데 이중에서도 활동 인원 45명이라는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태권도 동아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무사태부'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경원대학교 태권도 동아리와의 조우. 개성있는 부원들과의 인상적인 만남을 소개해 본다.

마침 동아리를 찾아간 날이 전체 총회를 하는 날이어서 복적거리는 동아리 방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커다란 동아리 방에 가득 들어찬 부원들 대부분이 99학번들이어서 그런지 동아리 방은 활기와 분주함 속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정기 총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머지 인터뷰를 시작하기도 힘들 정도였지만 자리를 정돈하고 앉은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하게 질문에 대답했다.

경원대학교 태권도 동아리는?

84년 11월 창립해서 올해로 15기를 맞이한 경원대학교 태권도 동아리는 18년의 학교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83년부터 태권도를 수련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을 시작하다가 84년 11월 제



▲98년 연무시범에서 호신술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일어일문과 98학번 김재현. 보는 이나 하는 이나 즐거운 듯 보인다.



▲동아리 새나기를 위한 환영의 자리에서도 태권도 시범은 빠지지 않는다.

1기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는데, 올해 16명의 신입부원을 맞은 이들 '무사태부' 부원들은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45명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태권도 수련이라는 1차적 목표와 함께 대학생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졸업생 40여명으로 운영되는 동문 모임도 활발해서 재학생 지원을 명문화 시켜놓고 각종 행사 지원에서부터 동아리 수첩 제작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원대학교는 지난해부터 태권도 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학교적인 차원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동아리들이 밀집한 C동 건물에서도 가장 먼저 입주한 것이 태권도 동아리라고 이들은 자랑한다. 넓고 잘 정돈된 동아리 방에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대규모 라커를 보면 부원들이 많을 만한 동아리라는 생각이 든다.

태권도 학과생들과 동아리 부원들의 교류는 아직 드문 편이다.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판단이고 또 각자의 활동 시간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하는 것이 있다면 최신식 매트가 잘 깔린 도장 정도일까.

운영과 활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두 시간씩 훈련을 하는데, 무도 동아리 중에서도 '고된 동아리'라는 소

문이 파다할 만큼 훈련 강도가 높다.

'무와 예를 겸비하자'는 언뜻 평범해보이는 부원은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모인 이들 젊은 대학생들에게 있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지상과제다.

학년초의 신입생 환영회와 대동제에서의 연무 시범, 하계·동계 수련회, 1년에 두 번 있는 동문 체육대회는 다른 동아리와 비슷하다. 동문 체육대회에서는 졸업생 선배들과 OB거부기 대회를 가지기도 한다.

90년대 초년부터 시작된 '경·진·한 (경원대, 건국대, 한양대) 친선 겨루기 대회'도 동아리의 큰 행사. 이름 그대로 경건하게 치러지는 행사라고, 학교 규찰대 활동을 하는 등 지킴이로서도 앞장선다.

동아리를 이끄는 힘

사실 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데는 부원들간의 때려야 뭉 수 없는 끈끈한 인간관계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다.



▲올해 학교 도장에서 가진 졸업 동문들과의 OB전에서, 선배의 아기가 나와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소수가 모여도 아름다운 조화 美를 창조한다. 이렇게...

동아리의 역사와 연원, 그리고 그간의 활동들에 대해 설명하는 후배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도움말을 주던 93학번 홍희득과 94학번 김대진은 후배들이 그저 귀엽기만 하다는 표정이다. 한가지 섭섭한

(98·회계학과)는 충남 당진에서 오로지 태권도를 하기 위해 상경(?)했다는 태권 소년이라고. 부원들의 애정어린 소개에 그저 조용히 웃기만 하는 차분한 성격의 이 '동네 이장'은 개성이 넘치는 이들 속에서 튀려면 오히려 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과 활동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98학번 관광경영학과 조운호. 자칭 14기의 수장이라 주장하는 그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태권도 동아리에 가입한 열성 당원이다. 같은 98학번으로 장학생이라 자랑하는 이동진, 99학번임에도 학년조에 충격적 외모를 보

임으로써 고향만 대접을 받는 신지웅 '웅', 여자친구에게 차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수련한다는 99학번 조재희, 화학실험생물공학부라는 외기도 어려운 학부에 다니지만 결국 맞난 조미료를

순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 끈끈한 신뢰감 쌓여 졸업생 모임 물심양면으로 후원 아끼지 않아

게 있다면 아직까지 효도팅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 이에 대해 후배들도 한마디 한다. '선배님은 미소녀이잖아요!'

후배들이 너무 순하기만 한 것 같아 아쉽다는 말은 생각해 볼만한 여지를 남겼다.

인터넷에 동아리 소개 글을 올렸던 주장 이근수

연구한다는 99학번 이길목, 별떡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소개를 함으로써 확실한 근기를 보여준 99학번 임재근, 여자 임격정이라 불리며 동아리 커플을 이룬 98학번 김경애, 전기공학과의 유승준이라 불리는 96학번 문수, 바람처럼 왔다 가버린 부장 98학번 이종현, 4학년인데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85년 전국대학 태권도대회에 처녀출전한 선배들의 모습. (대부분 정발이다.)



▲동아리 방에서 지를 기르기 위해 열심히 부원들. 총천연색 리커가 인상적.

다고 후배들이 존경하는 96학번 진상은, 그리고 조용히 앉아 간간이 웃던 99학번 서유식, 정오성, 황명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취재 내내 부원들의 도마에 올랐던 99학번 '오군' 오병민은 짧은 녀 달 동안 수많은 기행을 일삼아 부원들을 놀라게 했던 인물이라고.

개성과 자율의 조화로움

어느 때보다 많은 부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깊이있는 대화를 통해 동아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수는 없었지만 개성있는 부원들의 면면을 보다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신입생들로서 동아리에서 활동한 지 4개월 남짓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었다.

학부제로 바뀐 이후 과보다는 동아리에 더 정을 붙이고 열심히 하게 된다는 이들은 서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다 보니 아무리 바빠도 동아리에 대한 예



▲ "유연성 강화훈련 중입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꼭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힘들게 사귀는 친구가 오래 간다는 사실을 이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친구에게 끌려

동아리에 왔다가 친구는 가고 자기만 남아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웃기는 했지만 이들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진한 동기애를 감사히 여기고 있었다.

공대가 우세(?)한 경원대학교이기 때문에 태권도 동아리에도 공대생들이 많지만 올해 집행부가 인문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인지 동아리의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럽다'는 인상을 준다. 이에 대해 선배들은 '너무 순하다'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후배들의 생각은 다르다. 여자화 남자를 구별하지 않고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 서로간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 받는 분위기 때문에 이들과는 어떤 신뢰감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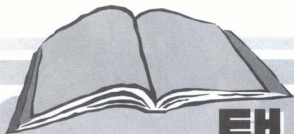
밝고 거침없이 자신들의 개성을 쏟아내면서도 무리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들의 매력이었다.

<정순영 프리라이터>



▲98년 대동제에서의 연무시범 중 공중격파.

역사 향기가 깃든



<연재 제 16회>

태권도 백과



이 경 명

(충청대 스포츠외교과 교수)

학문의 요람, 아카데미 비태권도학과의 모든 것

비태권도학과란 체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내 체육계열의 스포츠 외교과, 체육학과, 생활체육과 및 사회체육학과 등을 칭하며, 이러한 과에 유단자로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 중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체육학부, 경문

대학 생활체육과 그리고 충청대 스포츠 외교과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태권도학과생 못지않게 태권도를 전공하며 태권도 선수 또는 시범단에 소속돼 학교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뚜렷한 민족적 자각 속에서 태동되었다.

일제시대에 좌절된 호남지역의 민립대학

건립 운동은 해방 직후인 1946년 5월에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창립으로 부활되었다.

설립동지회는 발기 선언문을 통하여, 개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학문과 사회 현실이 상호 실

천적 연관을 갖는 현실적인 교육을 행하여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되 자질있는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체육대학에 체육학과(1960년 설치인가), 사회체육학과(1993년 9월 설치인가)가 개설돼 있다.

1998년 사회체육학과에 태권도 전공 유단자 20명을 선발했고, 1999년은 학부제 개편으로 체육학부생 120명을 선발했다.

이들 중 2학년 진학시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되는데 20명이 태권도 전공으로 분류하게 된다.

사회체육학과는 최근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졌고,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현상에 부응하는 사회체육 행정 및 지도, 관리와 각 활동현장에서 활약할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조선대 태권도 전공 학생들.

사회체육학은 새로운 사회적 조류에 따라 신설된 학과로 아직까지 전문 체육지도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졸업 후 진출은 밝다고 전망한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진출 분야는 사회체육 행정 지도자, 사회체육 전문 지도자, 각종 스포츠 지도자, 레저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 직장체육 지도자, 민간스포츠 시설 지도자, 스포츠 레저시설 매니저, 체력 테

스트 및 관리 지도자, 노인체육 지도자 등 다방면의 진출 분야를 설정해 놓고 있다.

태권도 전공학생들은 태권도부 활동을 겸하고 선수 육성의 차원에서 태권도선수 출신의 전문 강사가 지도하고 있다. 김주훈 주임 교수 아래 윤오남 전임 강사(광주 태권도협회 임원)와 이계행 강사(국가대표 출신)가 각각 품새, 겨루기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연락처 : 태권도학부 062-230-7427)



▲조선대 태권도선수들은 해외로 전지훈련을 가기도 한다.

스페인에서 어린이가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한수 지도한 뒤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다.

경문대학교



경문대학은 1997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경문(京文)에서 京은 높다, 최고다, 중심이다, 이끈다 등의 뜻, 文은 학문, 글, 글월, 문예, 예

기 등의 뜻을 포괄한다.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한 경문대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전문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21세기 특성화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경문대학은 세계 중심 대학으로서의 높은 이상을 갖고 학문과 기술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대학이 되고자 응비하고 있다.

원대한 뜻을 바탕으로 한 경문대학은 창조적, 실천적이며 인간존중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첫째,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 학년을 대상으로 TOEIC, 실용영어 등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둘째,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 전국 2위의 우수대학으로서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인턴제, 리콜제를 활용하는 등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화 교육의 요람으로 발전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넷째, 21세기 신문화 창출을 위한 태권도 문화산업을 특성화하여 중주국의 우수한 태권도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의 우수한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유학 및 진학, 연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은 물론, 학생의 입학에서 졸업 후 진로까지 지도하는 전담교수제 실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웅골찬 마음이다.

또한, 각 학과와 관련된 1개 이상 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함으로써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문대학이 위치한 평택지역은 육상과 해상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교육, 문화, 관광, 공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아산만권



▲경문대학 밀레니엄 남녀 태권도시범단이 지난 5월 1일 평택시 승탄관광특구 문화의 거리 2주년 기념행사에서 시범단 창단 이후 첫 시범을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경문대학은 올해 초 선수단을 창단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수원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중
별 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

개발에 따른 대규모 평택항이 개항되어 21세기 서
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실례로 경문대학은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의
제 3영역에 해당하는 지원분야인 태권도문화 특성
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난 4월 29일 162개 전문
대학 중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학교로 선정되었
다.

21세기 신문화 창출을 위한 태권도문화산업 특성
화 일환으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을 '저비
용 고효율' 집행을 위해 '99 경문대학장급 밀레니
엄 세계대학 태권도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올 10월 4일~10월 9일 동안 경문대학 및 송단문
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게 될 이 행사는 세계대
학태권도인의 국제교류증진, 대학태권도인의 대동
단합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 태권도를 통한 문화관
광 상용화, 세계대학 태권도인의 밀레니엄축제 한
마당, 세계태권도인의 태권도종주국의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경문대학은 지난 2월 제 8회 미국 태권도 오픈 국
제대회에서 최초로 한복 사극 전문 복식이 허영 씨
의 작품 '태권도 도복' 패션 쇼를 펼쳐 태권도인들
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대학 생활체육과, 패션디자인과 및 모델
과 등 3개 과가 공동으로 삼일위체를 이루며 태권
도 문화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도자기 개발, 캐릭터 개발, 웹 상거래
등 태권도 문화산업으로의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
치 상품 개발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태권도 선수단 및
시범단 창단식을
가졌고, 그간 각
종 대회에 출전하
여 입상한 바 있
다.

그리고 송탄관광
특구 문화의 거리
2주년 기념행사
에서 태권도시범
을 보이는 등 대외적
으로 활동을 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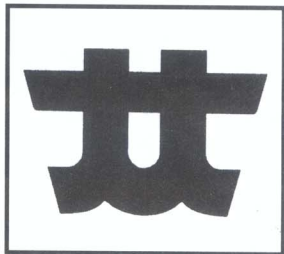
이 대학 생활체
육과는 주야간으
로 개설돼 있고
모집 인원은 각부

80명이다.

현재 태권도 학생수는 주야간 합해 1학년 100명, 2
학년 60명이다.

교수진은 교학처장 권오복 교수(현 평택시 태권도
협회장, 태권도선수단 부단장)와 생활체육과 이승
훈 교수(태권도선수단 감독) 및 서현석 코치(단국
대 경기지도학과 출신) 등이다. (연락처 : 생활체육
과 이승훈 교수연구실 0333-610-8193)

충청대학교



우수한 환
경에서 우수
한 인재가
만들어진다
는 이념 아
래 '큰 대학,
큰 교육'을
지향하는 충
청 대학은
1983년에 설
립된 16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

미국의 North Idaho College, Ball State University,
중국의 천진상업 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화
교육에 이바지 하고 있다.

국가사회의 내일의 동량으로서 산업사회에 필요
로 하는 지역역군, 지적안내자가 되어야 할 젊은



▲충청대학 태권도 문화사절단의 시범모습. 동남아와 유럽에도 파견되어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세대에게 학문과 기능을 갖출 수 있는 학구생활의 터전을 밝게 열어주고 이들을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성장토록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코자 장학이념을 성실, 창의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의 도장으로 충청학원을 설립하였다.

한 국가관 및 세계관을 지닌 유능한 국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로안내를 보면 한국국제협력요원, 해외파견 태권도 국제사범, 국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각종 국제대회 담당관, 국내 체육지도자, 국제스포츠연맹 요원, 무술경관 특별 채용 및 4년제 대학 편

스포츠 지도자, 국제사범 등 해외 진출 활발 취득가능 자격증 많아 활동 범위 광대

충청대학은 체육계열로 사회체육과와 스포츠외교과가 개설돼 있다.

모집 정원은 각 과별 80명이고 스포츠외교과는 98년도에 개설돼 내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충청대학 스포츠외교과는 국내 유일의 학과이다. 스포츠외교과는 우수한 스포츠외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유지·발전시키는 물론, 국내외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

입 등이다.

그리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태권도사범 자격,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체육실기교사, 국가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자격, 무형문화재 76호 태권 국가 전수생 자격 등이다.

충청대학 스포츠외교과 학생들의 특기로는 태권도, 태권, 합기도 등이며, 특히 40여 명으로 구성된 문화사절단의 활동이 주목된다.

매년 신학기 스포츠 외교과에서는 태권도문화사

절단원을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많아 선발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어느 대학과는 달리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태권도 문화사절단'의 명칭으로 국내의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지난 98, 99년 두 해에 걸쳐 동남아 및 유럽에 태권도 문화사절단을 파견, 태권도를 통해 '우리 문화와 지역 알리기' 활동을 펼쳤다.

4단 이상의 고단자들로 이뤄진 이 사절단은 각국을 방문해 격파와 호신술 및 청주시 민속무용단 단원의 민속무용 등을 보이고 '증편인심' '충주사과' 등 지역특산물과 속리산을 비롯한 지역관광자원 등 홍보도 곁들이고 있다.

일찍부터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충청대학은 21세기 국제화 사회에 당당히 주역이 되는 인재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98 세계청소년 태권도 문화축제를 개최, 23개국 7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국제화교육의 현장을 실증했다.

그리고 올해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제 2회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와 제 1회 세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 해에 이어 개최되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태권도만의 성격이 아닌 문화 관광축제로 상호교류를 통한 화합의 장으로서 세계 속에 우리의 것을 알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며, 나아가 스포츠 관광자원화의 의지를 펴보일 수 있는 국제문화공간의 한마당"을 이룬다.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외교를 지향하는 이 대학의 지극한 열정은 타대학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다. 충청대학 오경호 이사장은 현재 아시아태권도연맹 부회장이며 명예 4단 보유자, 그리고 정종택 학장은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이며 지난 6월 캐나다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참가,

명실공히 국제화시대에 스포츠외교의 일선에서 선순수범, 모범을 보이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생활지도자 연수원은 전국 전문대학으로는 최초로 1997년 10월 23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98년 8월 제 1차 3급 생활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 전국 17개 연수원 중 종합 2위라는 경이적인 합격률을 보여 많은 연수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충청대학 산학연구원 부설 15개 연구소 중 '태권도과학연구소' (소장 이경명 교수)는 금년에 개설돼, 태권도의 과학적 연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처음으로 무예도서실을 마련, 자료수집과 태권도 전문DB 구축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충청대학은 올해 초 태권도과학연구소를 개설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러시아국립체육과학대학 인사들과 태권도 교류에 대해 협의하는 모습.

그리고 지난 4월에 개원된 도민체력센터는 건강관리체계가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부응한 도민건강 및 체력증진, 나아가 태권도 과학연구소와 연계된 과학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대학 연례행사 중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위한 상설 기구로서 체육진흥회(태권도문화조직위원회)와 국제태권도연수원(원장 오노군 교수)이 설립돼 있다.

스포츠외교과 교수진은 오노군 교수를 비롯, 채재성 교수, 이경명 초빙교수, 한상진 겸임교수 등이다. (연락처 : 스포츠 외교과 0431-230-2091)



<연재 제 30회>

호로아글 · 그림

평양과 황해에서의 싸움이 큰 고비

<설마 일본이 그토록 많은 군대를 조선에 보낼 수 있을 줄이야...>

청나라의 으뜸가는 실력자였던 이홍장(李鴻章)은 자신이 일본군의 기동력(機動力=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러나 긴박한 시점에서 상황판단을 잘못된 것도 사실이지만 때마침 벌어지고 있던 정쟁(政爭=정치판의 싸움)에 말려들었던 것도 이홍장이 청일전쟁에 대비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정적(政敵=정치상으로 적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홍장의 움직임을 모두 비난하면서 권세를 깎아 내리고 안간힘을 썼다.

그 가운데에는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려는 이홍장에게 하필이면 『서태후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에 일본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군이 조선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한 마당에 역시 청나라의 군사(軍事)를 책임지고 나서야 될 인물은 이홍장밖에 없었다.

당시 청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을 치를 때의 작전은 먼저 해군이 북부 황해의 제해권(制海權=바다를 지배하는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육군이 바다로 수송되는 것을 지켜주고 육군은 평양부근에 집결한 뒤 진격해서 일본군을 깨부순다는 것이었다.

청나라의 이러한 작전에 대해 일본은 제 5사단을 조선에 파견해서 청국군을 견제하고 해군을 황해의 제해권 획득에 힘써서 제해권을 장악하면 육군의 주력부대를 만주로 진출시켜 한관 벌일 속셈이었다.

일본군의 가쓰라(桂太郎) 중장이 이끄는 제 3사단은 부산과 원산에 상륙한 뒤 서울로 들어갔고 노즈(野津道貫) 중장이 이끈 제 5사단은 부산과 원산에 상륙한 뒤 서울에 집결했다.

조선에 파견된 일본군을 통솔하기 위해서 야마가타(山縣有朋) 대장이 군사령관으로서 건너왔다.

야마가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제 3사단과 제 5사단 등으로 제 1군을 편성했다. 제 1군은 북부 조선의 제압을 피하고 있었다. 제 1군이 서울을 떠나 평양을 향해 북진하고 있을 즈음 바다 위에서는 이토오(伊東祐亨) 중장이 총지휘하는 연합함대가 제 1군의 북진을 엄호하고 있었다. 이에 맞선 청국 군도 일본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청나라 육군은 압록강을 넘어 남하해서 평양의 주력부대에 강력한 증원군을 보내는 한편 진지를 강화해서 일본군을 맞아 싸울 준비에 힘쓰고 있었다.

이 청나라 육군의 이동을 정여창(丁汝昌) 제독이 이끄는 북양함대가 해상으로부터 엄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일전쟁은 육군의 경우 평양 회전(會戰=쌍방의 군대가 어울려서 크게 싸움)이, 그리고 해군의 경우는 황해에서의 해전(海戰)이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인 일본의 개혁안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으로 권좌(權座=권력, 특히 통치권을 가진 자리)가 다시 시아버지인 대원군에게 넘어가자 민비는 왕궁 깊숙이 틀어박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용히 지켜만 볼 뿐 결코 정치의 표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을 빼앗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민비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측이 내세운 조선의 소위 내정개혁(內政改革=국내 정치를 바로잡음)이 그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새로 탄생한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일본 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일전쟁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지금 서울을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다해서 일본에 협력했다가 청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날이면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김홍집까지도 조선의 북부를 세력아래 두고 있는 청국군이 머지않아 일본군을 조선반도에서 몰아내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쪽에 몰래 「지금은 본의 아니게 일본 쪽에 협력하고 있으나 이것은 무력(武力)에 억눌린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서신을 보냈을 정도였다.

대원군은 일본이 마련한 내정개혁법안 하나하나를 뜯어잡고는 여간해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안되겠군. 대원군을 그 자리에 오래 두어서는 아무 일도 못 하겠어.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용해 먹고는 잘라 버려야지.』

일본정부는 대원군을 그 자리에서 내몰아버릴 궁리를 하게됐고 이 꾀새를 눈치챈 민비는 친일파(親日派=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 인사들을 도닥거리면서 『이 나라의 임금은 상감 한 분 아니신가.



▲서울 만리창에 들어온 일본군은 대열을 정비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성환, 안성, 공주의 청국군을 깨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평양으로 도망치게 만들었다.

대원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감께 법안을 올리시게」라고 귀뜸해 주었다.

민비는 상황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착실하게 왕권(王權=임금의 권위 또는 권력) 회복을 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쪽이 마련한 내정개혁안에는 조선의 전통이나 습관을 무시한 무리한 것들도 적지 않았으나 그 모든 것이 나쁜 내용은 아니었다. 예컨대 그릇된 정치를 없애기 위해 관리들의 부정행위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고 봉건관료기구를 수습하는 한편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할 것, 죄인의 처벌을 본인에 그치고 가족의 연좌(連坐=본인의 범죄가 아닌데도 휘말려서 처벌을 받음)는 인정하지 않을 것, 과부의 재혼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공사노비(公私奴婢=관이나 민간의 사내종과 계집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계약을 파기하고 인신매매(人身賣買=사람을 팔고 삼)를 금지하는 것 등이 개혁법안에는 담겨져 있었다.

이런 내용들은 갑신정변(甲申政變) 동학교도들의 개혁안에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들로서 조선민중들의 요구이기도 했다.

일본은 이런 개혁안만 제시하면 조선의 민중들이 두손을 들고 환영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혁에 대해 조선민중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일본의 외무대신인 무쯔는 『나는 원래 조선내정의 개혁은 정치적 필요 이외에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조선의 내정개혁은 첫째로 우리나라(일본)의 이익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 선에서 그치고 구태여 우리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개혁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 쪽이 내놓은 내정개혁안이란 결국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인 셈이었다.

아직도 반년은 더 걸려야...

지리산 피아골의 지리산패 본부에는 오랜만에 화기(和氣=은화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들의 두령인 두역시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이 난 것은 고아들로 이루어진 꼬마부대들이었다. 꼬마들은 그들의 영웅이자 놀이 상대인 두역시니가 아직은 나무 지팡이에 의지하고 비틀거리면서라도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더없이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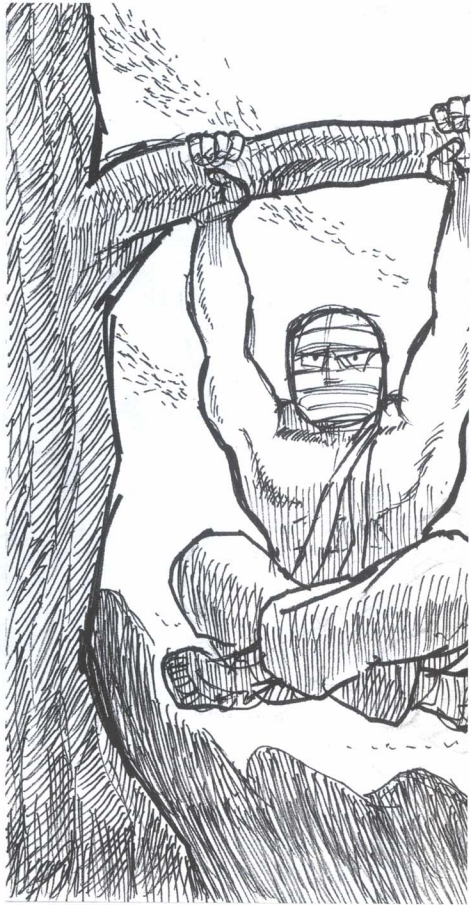
『아찌! 이제 괜찮은 거야?』

『아저씨, 감자 구워 즐겨?』

자갈, 분이, 족새, 개코 등 꼬마들은 두역시니를 둘러싸고 왁자지껄 떠들었다.

〈쌈뽀터에서는 귀신처럼, 때로는 냉혹할 만치 잔인하기까지 한 두령이 어찌서 아이들만 만나면 마치 그들과 친구인 양 저렇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일까?〉

낮은 바위 위에 걸터앉아 아이들의 얼굴을 한 명씩 인자한 눈초리로 돌아가면서 살피는 두역시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족제비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역시니의 몸에서 독을 완전히 빼내고 지난날의 기력(氣力=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의 힘)을 되찾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피아골에 흐르는 냇물이 비록 낙차(落差=물이 흘러 떨어지는 높이)는 크지 않지만 세찬 물줄기를 맞으며 명상에 잠기면서 두역시니는 맑은 정신을 되찾으려 애를 썼다.

또한 독으로 마비됐던 근육들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나뭇가지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처음에는 다섯 손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 네 손

가락, 세 손가락,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지와 검지만의 두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를 해서 구슬 같은 땀을 흘렸다.

또 지리산패가 구해온 산삼(山蔘) 뿌리를 달여 마심으로써 역시 몸의 독기(毒氣=독의 성분이나 기분)를 빼내도록 힘썼다.

그러나 갑자대의 마지막 공격이었던 표창의 독은 워낙 성분이 강해서 쉽사리 빠지지 않았고 두역시니의 회복도 더디기만 했다.

하지만 두역시니는 조조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력회복을 위해 정해놓은 일과를 매일매일 충실히 소화해 나갔다.

비록 속도는 더디지만 두역시니는 분명히 조금씩이나마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전봉준의 곁에서 두역시니로 가장해 있는 불곰과의 연락은 거의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두역시니와 족제비는 지리산에 있으면서도 동학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두령, 아무래도 동학군이 또다시 봉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재봉기의 명분은 외세, 특히 일본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는 데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족제비의 이야기를 듣고도 두역시니는 아무 대답이 없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두역시니의 습성(習性=오랜 습관에 의하여 굳어진 성질)을 잘 아는 족제비는 더 이상 말을 잊지 않고 두령이 반응해 오기만을 기다렸다.

『재봉기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윽고 생각을 정리했는지 두역시니는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성공하기는 힘들 걸세.』

족제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임을 나타냈다.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은 청나라의 패배로 끝나고 우리 조선은 왜놈들에게 한동안 시달릴 걸세.』

『두령, 청나라가 일본에게 질까요?』

『음, 승산(勝算=이길 가망)은 일본에게 있네.』

『하지만 두령 청나라는 대국(大國=큰 나라)이고 일본은 고작 작은 섬나라에 지나지 않습니까?』

족제비의 반론에 두역시니는 일단 고개를 끄덕이긴 했다.

『자네 말이 맞네. 청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대국이지. 그러나 지금은 일본에게 두 가지 점에서

뒤지고 있네.』

『두 가지 점에서 뒤지고 있다니요?』

『하나는 무기(武器)일세. 그 동안 일본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서 청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왔어, 군함의 함포(艦砲)만 해도 청국이 큰 대포를 지니고 있지만 빨리 쏠아댈 수 있는 속사포(速射砲)는 일본이 앞서 있어.』

두역시니는 그 동안 일본, 러시아, 청나라 등의 공관에 잠입시켰던 지리산패들이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삼아 이미 이번 전쟁은 일본이 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재봉기 할 수밖에 없겠지만 성공하기는 힘들 걸세.”

많은 사람들, 심지어 조선의 집권자들까지도 청나라가 일본을 이길 것이라 내다보고 있던 시점에서 두역시니만은 일본에게 승산이 있다고 점친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군사들의 정신력일세. 섬나라 일본은 이번 기회에 우격다짐으로라도 조선을 자기네 지배아래 두고 만주로 진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조선에 파병했어.』

두역시니의 말은 모두 정확히 문제의 과녁을 뚫고 있었다. 족제비는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두령의 다음 말을 재촉했다.

『반면 청국군은 그저 자기네 아랫나라로 여기고 있는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 마지못해 싸운다는 정신적 자세밖에 갖고있지 못하네. 아마도 평양과 황해에서 청나라는 크게 깨질 거야.』

『두령, 그렇다면 지금 동학이 다시 일어나서 청국군과 힘을 합쳐 일본군을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족제비의 이 말에 두역시니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자네 말이 맞네. 우리 동학이 남점과 북점으로 갈라져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서 지금 당장 들고일어난다면 육전(陸戰=지상전)의 상황은 달라질지 모르지. 그러나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데다 내가 전선에 복귀하려면 앞으로는 더 걸려야 되네.』

『.....』

사실 군사(軍師) 두역시니가 전선에 복귀한다 손 치더라도 동학군이 신에무기를 갖춘 일본군과 맞싸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큰 의문이다. 더구나 남북접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역시니의 보필 없이 전봉준 장군이 동학군을 얼마나 쓸모 있게 다룰 수 있는지는 더 큰 의문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두역시니가 내다본 대로 전쟁은 진행되고...

두역시니가 내다본 대로 청일전쟁은 펼쳐져 갔다.

청·일 두 나라의 해군이 황해에서 격돌한 것은 9월 17일의 일이었다.

낮 12시 50분 두 함대의 거리가 5800m 가량으로 좁아졌을 때 먼저 청나라 정원(定遠)의 함포가 불을 뿜었다. 이어 청나라 함대는 일제 포격을 개시했다.

정원이 발포하고 난 지 5분 만에 두 함대의 거리는 3000m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본 함대는 그때까지도 아직 포문을 열지 않고 있었다.

일본 함대의 속사포는 더 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장비였다.

한편 청국 함대의 대구경포(大口經砲)는 포탄이 날아가는 비거리(飛距離)가 충분하긴 하지만 포자체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워 포좌(砲座=대포를 올려놓는 대좌·台座)를 회전시키면 군함이 기울어 조준을 하기가 힘들다는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더구나 전력으로 달리고 있을 때는 더욱 조준하기가 힘들었다.

일본 함대는 거리가 2000m로 좁혀졌을 때야 비로소 응사(應射=상대편의 사격에 맞서서 사격함)를 시작했다.

일본 함대가 쏘아대는 속사포의 위력은 대단했다. 일본 함대는 청국 함대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정확한 속사포 사격으로 청국 함대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먼저 겁을 내고 도망가기 시작한 것은 청국 순양함 제원(濟遠)이었다. 제원은 재빨리 전열(戰列=전쟁에 참가한 부대의 대열)에서 벗어나버렸고 이를 본 순양함 광갑(廣甲)도 바로 전역(戰域=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해역)에서 벗어났다.

이 두 척의 청국 군함만이 일본 함대의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두 나라 함대가 뒤섞여 치고 받는 포격전이 벌어진 가운데 청국 순양함 초용(超

勇)의 화약고가 터져 불길을 뿜었고 얼마 안돼서 불길이 검은 연기로 바뀌면서 초용은 몸부림치듯 떨면서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청국 순양함 치원(致遠)도 뱃머리부터 가라앉기 시작했다. 뱃머리를 포탄으로 얻어맞은 치원은 그곳부터 침수하기 시작해 치츄함체(艦體=군함의 몸통)를 곧추세우더니 공중에서 스크루가 헛돌면서 물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청국 순양함 경원(經遠)은 함체의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뒤집어지더니 뱃머리를 바다에 꽂고 꼬리를 흔들면서 삼시간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또 청국 순양함 양위(揚威)는 함내(艦內=군함 내부)의 화재는 겠으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방향을 잘못 잡아 대륙도 부근의 작은 섬에 올라가고 말았다.

일본의 기함(旗艦=함대의 사령관이 타고 있는 군함)인 마쓰시마(松島)도 청국의 거함(巨艦=큰 군함)이 발사한 포탄을 맞아 포병 36명이 즉사하고 68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군함 자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다.

4시간 반의 전투 끝에 황해에 어둠이 깃들었고 포성도 멎었다.

일본 함대는 단 한 척의 군함도 잃지 않은 반면 청국 함대는 3척이 침몰하고 2척이 좌초하는 바람에 모두 5척을 잃었다.

엄청난 손해를 입은 청국 함대는 남쪽으로 사라졌다.

평양 점령한 일본군은 북부조선 장악

아마가마 대장이 이끄는 일본군 제 1군은 황해해전(黃海海戰)이 벌어지기 사흘 전인 9월 14일에 평양교외에 도달했다.

1만 7천 명의 병력을 지닌 제 1군은 그날 안으로 대동강을 건너 토성과 성벽으로 이루어진 평양성



을 세 방향에서 포위했다.

다음날인 9월 15일 새벽 일본군은 인해전술(人海戰術=많은 지상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무릅쓰고 적군을 압도하려는 전술)로 평양성을 공략했다.



청·일전쟁에서 잇단 승리를 거둔 일본군은 청국군 포로를 지키는 일에 조선의 정부군을 동원했다.

하러마 일등병이 평양성 정문인 현무문(玄武門)을 가장 먼저 돌파했다. 일본군의 맹공에 청국군 1만 2천 명은 밀리고 밀려서 날이 저물자 어둠에 섞여 평양성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평양성을 일본군이 점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북부조선이 일본군의 세력아래 들어갔다.

사기가 높아진 일본군의 다음 목표는 압록강을 건너 청국 본토를 침공하는 것이었다.

요동반도의 요지(要地=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 대련(大連)과 여순(旅順)의 공략이 야마가따 대장의 꿈이었다.

평양성의 점령과 황해해전의 승리가 전해지자 일본은 온 나라안이 기쁨으로 발칵 뒤집어졌다. 개전 초기에 짙게 깔려있던 불안감은 자취 없이 사라지고 일본 국민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는 그런 기분이 됐다.

특히 군(軍)당국자들의 높아진 콧대는 불쌍사나울 정도였다. 군당국자들은 일본의 외교기술을 비난하고 무력(武力)만이 지상(至上=더없이 높은)이라는 태도를 내세웠다.

처음에는 청나라와의 전쟁에 소극적이었던 메이지(明治) 천황도 손바닥을 뒤집듯이 전쟁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메이지 천황은 청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난 뒤에도 『이 전쟁은 짐(朕=임금이 「나」라는 뜻으로 「자기」를 일컫던 말)의 전쟁이 아니라 대신(大臣)들의 전쟁이다』라고 서슴없이 공언(公言=공개하여 하는 말)했었다.

만약 일본이 청나라에게 질 경우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천황은 이 전쟁에 찬성하지 않았었다」고 도망갈 구명을 마련해두자는 속셈이었을지 모르나 아무튼 그만치 일본은 큰 나라인 청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전쟁 첫머리부터 연승(連勝=두 차례 이상의 전쟁이나 경기 등에서 잇달아 이김)에 이은 연승을 거두자 일본 국민들은 기고만장(氣高萬丈=일이 뜻대로 잘되어 기세가 대단함)해서 이미 조선은 자기네 지배아래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기분이었다.

일본의 눈은 조선을 넘어서서 청나라에 몰락했다.

군당국은 청나라 본토에 직접 쳐들어갈 제 2군을 편성했다. 제 2군사령관은 오오야마(大山巖) 대장이었다. 그는 육군대신을 겸하고 있는 일본군의 거물이었다.

일본의 속내를 아직도 모르겠소?

동학군과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은 뒤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정부는 농민들이 중심을 이루고있는 동학군의 무서움을 잊어버렸고 동학군이 주동이 되어 지방행정을 펼치고 있는 집강소(執綱所)의 존재만이 눈에 거슬렀다.

『동학군이 집강소라는 조직을 바탕 삼아 언제 다시 들고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야』

『으음! 일단 전주화약으로 사태를 수습하긴 했으나 동학의 뿌리를 아직 뽑지는 못했지』

일본은 조선반도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전쟁은 치르는 한편 조선정부에 대해서는 동학의 조직을 뿌리째 뽑아 후환(後患=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에 생기는 걱정이나 근심)을 없애라고 부추겼으며 조선정부 고관들은 이에 놀아났다.

끝내 조선정부는 내란평정(內亂平定=나라안에서 일어난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킴)이라는 명목(名目=표면상 내세우는 이름)을 만들어냈다. 조선정부는 그 명목아래 집강소의 존재를 반정부의 내란이라고 간주(看做=그렇다고 여기)하고 동학의 조직탄압에 나선다는 정보를 흘렸다.

『정부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동학탄압에 나선다는 소문이 자자하오』

“일본군은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조선을 장악했소.”

동학군 간부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가졌고 먼저 최경선이 입을 열었다.

『그 소문은 사실인 것 같소. 아마도 정부군뿐만 아니라 일본군도 동학도벌에 가세할 것 같소』

김덕명도 최경선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청나라와의 전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군이 어찌서 지금 동학을 적으로 삼으려하고 있는 것이오?』

자신도 이미 일본군과 정부군이 동학탄압에 나선리라는 소문을 들었으나 청나라와의 전쟁을 끝내지 않은 채 일본군이 병력을 쫓겨 동학도벌에 나서는 까닭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송두호가 의문을 제시했다.

『하긴 그렇소. 대국인 청나라와의 전쟁만 하더라도 무척 힘이 들텐데 말이오』

황채오도 송두호와 같은 의문을 지니고 있었다.

그 문제를 놓고 한동안 좌중(座中=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이 떠들썩했으나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전봉준이 입을 열자 모두 조용해졌다.

『여러분, 아직도 일본의 속내(사람이나 사물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정)를 모르겠소?』

동학군 간부들은 전봉준의 다음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일본군은 이미 왕궁을 점거(占據=일정한 곳을 차지하여 자리를 잡음)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조선을 장악했소』

전봉준의 말에 몇 사람은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또한 아마가다가 이끄는 일본군은 평양에서 청국군을 크게 깨뜨려 평양성을 점령하고 북부 조선을 그들의 세력아래 두었소』

옳은 말이다. 일본군은 조선반도의 중부와 북부를 군사력으로 장악한 것이다.

『남은 곳은 어디요? 우리 농민과 동학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남부조선뿐이지 않소. 안 그렇소? 지금 그나마 일본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조선의 남쪽뿐이오』

전봉준의 상황풀이를 듣고있던 동학군 간부들은 그제서야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다.

『일본이 남부조선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면 가장 먼저 그들의 ‘눈엣가시’인 우리 동학을 치러들 것 아니겠소. 이제 남부조선까지 그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오』

전봉준은 말을 마친 뒤 한동안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다가 자신의 속을 털어놓았다.

『남원에 있는 김개남 장군이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한다고 전해왔소. 일본군과의 싸움은 우리 관군과의 싸움과 달리 몹시 힘든 싸움이 될 것이오. 아무튼 머지않아 삼례에서 동학의 여러 수뇌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재봉기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오』

세월 따라 역사도 흐른다

그 동안 대립됐던 동학의 복잡과 남점이 화해를 이루어 뜻을 하나로 모으지 않았더라면, 또 삼례에서 가진 동학수뇌들의 모임에서 격론 끝에 주전론(主戰論=전쟁하기를 주장하는 논리)이 우세를 거두지 않았더라면 동학의 재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는 동학의 재봉기가 일어나는 길을 빠른 속도로 치달았다.

동학교단 제 2세의 교주 최시형은 전주성을 함락시킨 전봉준의 봉기에 반대했었다. 종교활동은 어디까지나 사회활동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하고 무력(武力)의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따라서 최시형은 봉기를 일으켜 군사행동에 나선 전봉준 등을 가리켜 국가의 역적, 사문(師門)의 난적(亂賊)이라고까지 욕하고 별남기(伐南旗=남쪽의 동학군을 토벌하는 깃발)까지 만들었다.



『남북점의 대립은 동학의 분열과 멸망을 가져온 다.』는 소리는 남점이나 북점이나 같을 수밖에 없었다.

노선(路線=개인이나 조직, 단체 따위의 일정한 활동방향)통일의 당위성(當爲性=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성질)이 양쪽에 의해 인정된 가운데 중도파(中道派=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무리)인 오지영이 김방서, 유한필 등과 함께 삼례에 있는 전봉준과 보은에 있는 최시형을 차례로 찾아가 양쪽의 화해를 주선했다.

오지영은 북점파의 실질적인 우두머리 격인 손병희에게 『이번 재봉기는 일본군과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구해내자는 전쟁』이라고 설

득했다.

이 손병희가 바로 뒷날인 1919년 3·1 독립운동 때 독립선언을 한 33인 가운데 한사람인 그 손병희다.

손병희는 물론 교주인 최시형도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내자』는 대의명분(大義名分=사람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도리나 본분)에는 반대할 수가 없었다.

결국 최시형을 벌납기를 찢어버리고 북점파가 남점파에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이 화합을 계기로 전봉준과 손병희는 의형제의 결의(結義=남남끼리 의리로써 형제, 자매, 남매와 같은 관계를 맺음)를 맺어 전봉준이 형, 손병희가 동생이 됐다.

동학군의 다른 수뇌들과 회동(會同=같은 목적으로 여럿이 모임)하기 위해 평사리를 떠난 전봉준이 삼례에 도착한 것은 10월 9일이었다. 그의 옆에는 두역시니를 가장한 불곰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주전파(主戰派)인 김개남은 이미 먼저 도착해있으며 진안점주 문계팔, 전영동, 이종태, 금구점주 조준구, 전주점주 최대봉, 송일두, 정음의 손여옥, 부안의 김석운, 김여중, 송희옥, 손화중 등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대원군이 보낸 밀사 박완남도 은밀히 그 자리에 참석했다.

전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일어났을 때에도 동학은 대원군의 권좌복귀를 주장해 그에게 호의를 보였었고 대원군은 대원군대로 북으로부터 청나라 군대가, 남으로부터는 동학군이 일본군을 협공(挾攻=사이에 끼워놓고 양쪽에서 들이침)해야 일본군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 동안의 회의는 끼니로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계속했다.

강력한 주전론을 펼치는 김개남과 조금 더 사태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펼친 전봉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이미 4천 명이나 되는 동학군이 모여들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의 분위기는 주전론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결국 주전파의 주장이 관철되었고 진공(進功=앞으로 나아가 적을 침)의 첫 번째 목표를 공주(公州)로 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회의를 마친 뒤 마당으로 나온 전봉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 이런 때에 진짜 군사(軍師=두역시니를 가리킴)가 옆에 있어주었다더라면…』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



하 권 의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 의 학



심 중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어린이의 걸음걸이

안짱 걸음

어린이들이 성장하면 아장아장하던 걸음걸이는 점점 어른에 가까워지게 된다.

대개 생후 12개월을 전후로 하여 보행을 시작하게 되지만 어른의 걸음걸이로 되는 것은 만 3세를 훨씬 지나야 된다.

어린이 때의 걸음걸이에 비하면 성장할수록 걸음 횟수는 적어지지만 보행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정상적인 성인이 보행을 할 때 보면 양쪽이 대칭적이고 발끝이 약간 밖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발끝이 안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안짱걸음"을 한다고 하여 좀 어색한 걸음걸이가 된다.

돌이 지나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하게 되는 어린이를 보면 대부분 발이 심하게 밖으로 향하거나 안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어설픈 걸음걸이 모양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대부분 저절로 바르게 된다.

요즘 부모들은 이러한 어린이의 걸음걸이를 교정을 빨리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초조해 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의 걸음걸이의 성장은 다른 부분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환경, 유전, 영양상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많다.

가령 어떤 어린이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어린이는 뚱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어린이들이 모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를 하고 측정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어린이일 것이다.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어린이들은 발을 끝면서 걷기도 하고, 어떤 어린이들은 발끝이 심하게 안으로 향하여 발끼리 부딪쳐 넘어지거나 달리기를 잘 못할 수도 있다.

정도가 심해서 교정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상한 걸음걸이들은 성장과 더불어 저절로 교정이 된다.

3~4세된 어린이들은 대부분 발끝이 안으로 향하는 안짱걸음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걸음을 걷다가 발끝끼리 부딪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걷는 모습이 보기에도 매우 흉하다.

하지만 이러한 걸음걸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교정이 된다.

성장이 끝날 때까지 변형이 심하게 남아 있을 확률은 1%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따라서 극히 심한 경우를 제외하면 교정보조기 등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갓가지 증상

어린이들이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 경우가 있다. 생후 2세 이전에는 이러한 일이 정상적으로도 흔

하지만 계속하여 뒤꿈치를 들고 걷게 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생후 만 2~3세가 지나도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경우는 정상이 아니다.

뒤꿈치를 들고 걷는 어린이의 가장 흔한 진단은 뇌성마비이다.

뇌성마비는 조산을 하거나 분만을 전후로 하여 아기의 뇌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에 발생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발육이 매우 느리고 운동능력이 떨어져서 빨리 발견된다.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진단을 못하다가 3~4세가 되도록 뒤꿈치를 들고 걷는 바람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발끝이 밖으로 향하는 걸음걸이는 어린이에게서 드물지만 간혹 나타난다.

특히 어린이가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발끝이 밖으로 향하게 된다.

발끝이 밖으로 향하는 경우는 저절로 교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걸음걸이나 자세가 웬지 비뚤어진 것 같아 외래를 찾는 어린이들도 많다.

이들 중에는 한쪽 골반이 쳐져서 비대칭인 경우가

3~4세까지의
안짱 걸음은
정상적일수 있다



대개 성장이 완료된 후에도 2cm 미만의 차이가 나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다.

어린이의 다리 모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운동은

걸음마 단계에서의 비정상적인 걸음걸이

무리한 교정, 과격한 운동 시키지 말아야

많은데, 척추가 휜 어린이도 있고 양쪽의 다리 길이가 다른 어린이도 있다.

여러 상황 고려해 치료법 정해야

척추가 휜 경우는 원인이 다양하고 휜 각도의 정도에 따라서 보조기를 쓰거나 수술을 하여 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양쪽의 다리길이가 달라서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이는 어린이는 원인을 우선 찾아야 한다.

하지만 원인이 없이 선천적으로 다리길이가 약간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다리길이 차이는 성장하면서 점점 심해지므로 성장하는 어린이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여 치료시기와 치료방법을 정한다.

물론 치료가 필요없는 어린이도 있다.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

많은 부모들이 안짱다리를 고치게 하기 위하여 무용이나 수영을 어린이에게 가르치는데 이러한 운동이 어린이 다리 발육에 해롭지 않기 위해서는 관절에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다든지, 어린이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운동량으로 연습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습관이 바뀌어서 다리가 심하게 휘는 구루병 등의 영양 결핍증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서구화된 환경으로 방바닥에 앉기보다는 의자 생활을 하고, 아기를 업는 습관이 줄어드는 등 어린이의 다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선진국형으로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러한 서구화된 성장환경이 과연 어린이의 걸음걸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향후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의 무도연구소(소장 민경호 박사)의 양해를 얻어 동 연구소가 엮어낸 논문집에서 골라 싣고 있습니다.

무술은 자아발견과 자아개발의 장

태권도의 수련효과는 무엇일까?

태권도 수련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을 갈고 닦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필자인 프랭크 스태거즈(의사)는 자신의 태권도 수련경험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진선 옮김>

프랭크 스태거즈

캘리포니아 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원

무술시범에 매혹 -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심

최초로 무술 시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나는 어리고 작은 소년이었다. 노련한 무술가들은 우아한 몸동작으로 팔찌르기, 발차기, 장에물 격파, 칼 공격 막기, 돌 부수기, 다른 사람을 힘들이지 않고 집어 던지기, 공기를 가르며 뛰어오르기, 다른 사람을 뛰어넘기,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고 최고점(最高點)에서 낙법을 실행하였다. 또 상급의 무술가 몇몇은 무술 수련 지원자를 끌어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생명의 힘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동작들의 시범을 보였다.

그때의 무술가들은 자신들의 몸통과 사지(四肢)를 널빤지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심한 상처나 신체에 특별한 악영향 없이 어마어마한 무게와 커다란 충격을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은 바닥에 자신의 몸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시범을 지켜보던 관중석에서 여러 자원자가 나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무술가들을 들 수가 없었고 움직이게 할 수조차 없었다.

이때의 무술 시범에 완벽하게 매혹당한 나는 그때의 일이 무려 36년 전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인간의 몸이 그러한 힘, 집중력, 정밀함, 우아함, 탄력성을 지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더구나 인간의 몸이 겉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여러 재주를 부릴 수 있다는 점이 경이로웠다.

무술 시범을 보고 나서 곧바로 무술 수강을 신청한 나는 인간의 마음과 몸에 대한 내 자신만의 심오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고, 무술과 접한 경험은

내가 의사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가 그토록 어릴 때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이해하고, 그 무술 시범에 크게 고무되었기에 의사가 되었다.

나는 정묘하게 다듬어진 무술가의 마음과 몸이 뇌리에 꽃힐 만큼 강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인간의 신체를 개발시키고 발전하게 하는 방법과 연관을 맺고 싶다고 생각했다.

무술에서 배운 원리, 의사의 활동에 많은 영향

후에 의과 대학에 다니면서 무술에서 배운 많은 원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의사는 의술을 펼칠 때 자신들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이 합쳐져서 의술로 표출되는데, 나의 경우는 무술 경험이 내가 왜 의사로서 활동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존재 근거에 영향을 끼쳤다. 나는 무술 수련을 통해 의사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더 넓은 통찰력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나의 무술 수련은 마치 포괄적인 의학부 예과 과정 같았는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의학부 예과 과정은 의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육체적 기술, 정신적 기술, 심리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세련되게 발달시키도록 이끌었다.

예를 들자면 무술 수련 경험을 통해 나는 가르치는 기술이 늘었다. 어린 시절 유도 수강을 할 때, 나보다 실력과 경험이 뒤지는 다른 어린이를 지도하며 익힌 가르치는 기술(教授方法)은 내가 현재 의학부 학생들과 레지던트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

는 기술과 근본적으로 똑같다. 모든 무술은 각 서열의 띠가 자신들보다 아래 서열의 띠를 지도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여지듯이 무술인들은 아주 어린 시절에 직접적인 지도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내 경우에 있어서 무술 수련을 통해 직관력이 날카롭게 발달했는데, 직관력은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무술가와 마찬가지로 의사도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여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무술 수련을 통해서 나는 모든 의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어떠한 압박감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복잡한 결정을 재빨리 내리고, 고난도의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법을 배웠다.

무술 수련을 통해 나는 인간적인 안정감을 얻었고, 인격의 도야를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커다란 편안함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 수 있었고, 나의 의무를 실행할 수 있었다.

무술 수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

아마도 무술 수련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것은 내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일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의 형태는 많은 무술가들에게서 보여지는데, 심지어 젊은 무술가들조차도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의 가라데 토너먼트 경기에서 6살 난 선수가 머리에 강한 일격을 받았다. 내가 경기 매트에 도착하기 전에 일곱 살 난 심판(코너맨, corner man)이 벌써 상당히 훌륭한 신경학 진단을 내리고, 나에게 그가 내린 평가와 예측을 또렷하게 설명하였다. 그 일곱 살 난 소년이 의대생이었다면 나는 그에게 높은 학점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이 일곱 살 짜리가 미래에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태권도 시범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힘과 정신을 집중해 보여주는 다양한 시범은 태권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실 이와 같은 자신감을 가진 그 일곱살내기는 아마도 신경의과가 되지 않을까.

노년층의 무술가들을 보면서, 배움은 평생에 걸친 노력이고,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쉽게 위업(偉業)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술 경험을 통해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 깨달아

생생하고 확실한 무술 경험을 통해, 진화하며 더 어려운 도전들을 발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서투른 초보자가 열의와 연습을 통하여 능숙하고 고도로 단련된 달인으로 변모해나가는 환상적인 순간들을 목격해 왔다.

적절한 수련과 의욕과 열의가 있다면 불가능한 도전이란 없다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실재적으로 어떠한 육체적인 도전이나 지적인 도전이 있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졌다.



▲훈신의 힘을 다해 옆차기 기술을 보이고 있는 태권도인의 모습. 자신을 이긴 참다운 무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내가 의사가 된 지도 12년이 넘었는데, 이 세월 동안 수많은 매혹적인 일들을 경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훌륭한 무술 시범에 매료되고 곤 한다. 무술 시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학 적 신경물리학적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예전보다 요즘 더 무술 시범에 매료되는 것 같다.(단순히 엄지 손가락을 다른 손가락 쪽으로 움직이는 데만도 수백만 개의 신경 세포가 사용된다. 복잡한 폼새를 취하고 있는 동안 이 엄청난 작업이 수십 배로 확대된다는 분석을 내

리게 되면 마음이 움찔하게 된다)

나를 고무시킨 무술과 관련된 경험은 무술은 수천 년 동안 인간 삶을 풍성하게 하는 특별한 순간을 제공하여 왔다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전통적으로 무술은 활력에 찬 삶의 기술이라는 초자연적인 세 가지 요소에 관해 기술된 전기서(傳奇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병을 치료하는 기술과 자신을 개발하는 방법은 이 초자연적인 세 요소의 두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치료술은 지압술, 마사지, 침술, 약초 준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아 수련법은 요가, 다양한 형태의 명상, 심사숙고, 내적 성찰, 호흡과 심명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수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정신통일과 집중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정신 훈련도 포함한다.

이 전기서를 구성하는 세 요소는 전사(戰士)이자 현인이자 치료자인 나이 든 무술의 달인을 묘사한 무술 관련 책이나 무술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러한 무술가의 이미지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러한 무술 고수들의 존재로 인해 전세계에 다양한 형태의 무술이 비교적 쉽게 전파되었다.

훌륭한 무술가는 마음과 신체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치료에 관해서 말하자면, 모든 올바른 무술가들은 치료자가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무술 수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훌륭한 무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신체의 본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예를 들자면 적절한 휴식, 식이요법, 수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자아 수련에 관해서 말하자면 무술가들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생각과 감정을 신체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킨다고 하는 뉴로펩타이드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사물을 초월하는 마음의 힘을 보여줬다. 여기에 관해선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다.

“참다운 무술가는 먼저 자신의 내면과 싸워서 자신을 정복해야만 한다.”

무술가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인류의 복지에 앞장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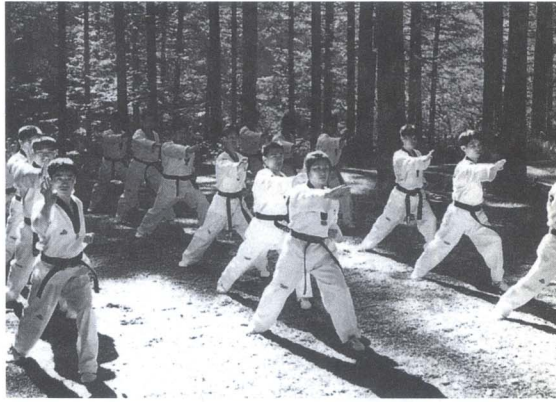
무술가는 한 수준 더 높은 자연법칙과 관례에서

자신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아야만 한다. 무술가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비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 자신을 연마해야만 한다. 무술가들은 우주의 자연 질서에 대해 이해하고, 우주 안에서 무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만 한다.

치료술, 무술, 자아 수련법이라는 생명의 세 가지 요소는 인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방법이고 (각 요소는 자기 개발과 진화라는 방법이다), 이 초자연적인 세 가지는 역사를 통해 보면, 주요 문명의 되풀이되는 주제였다.

예를 들자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무술과 치료술과 자아 수련법에 관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오직 사제(司祭)와 귀족들에게만 전수되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모두는 초자연적인 원소들을 결합시키는데, 이 초자연적인 원소들은 우주의 힘, 즉 삼만만의 통일성이 미치는 범위를 회전하고 있다. 즉 우주의 힘은 모든 것을 생성한다. 우주의 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이 세 가지 수련을 비밀로 감추었다.

인도에서는 '칼라리파이잇'이라고 하는 형태의 고대 무술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인도의 의술 형태인 '아유르베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유



▲태권도 수련은 인간의 신체를 개발시킬 뿐만 아니라 자아를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쳐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르쳐졌고, 주로 사제나 귀족들에게만 전수되었다.

왜 이러한 초자연적인 3가지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우주적으로 가치가 있고, 보존되어지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걸까?

주된 이유는 초자연적인 세 가지를 이루는 개개의 구성 요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심오한 시각을 제공하고,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을 어렵듯이 알아챌

적절한 수련과 열의로 도전에 대한 확신 가져 초자연적 시각으로 문명의 개화 초래

르베다'는 "삶의 지식"이란 뜻으로 자연계의 다섯 개의 원소(흙, 바람, 불, 물, 에테르 - 천공의 靈氣)를 균형 잡는 것과 연관이 있다.

더 나아가 아유르베다와 칼라리파이잇 모두는 '오자스' 즉 생명의 힘을 조절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생명의 기술 세가지는 주로 사제와 귀족들에게만 전수되었다.

중국 의술의 고대 형태는 "기(氣, 생명의 힘)"라는 개념과 기와 인간 신체와의 관계에 바탕을 두었다.

고대의 중국 무술과 자아 수련법은 전적으로 "기"의 사용에 중점을 두었다. 중국의 고대 무술과 치료술과 자아 수련법은 종종 3가지가 따로따로 가르

수 있도록 한다. 시각(보는 눈)을 가지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자유가 생긴다. 현명하게만 사용된다면 이 초자연적인 세 가지는 인류의 진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문명의 개화를 초래한다.

무술은 트리오(초자연적인 세 가지)가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존재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세 가지 중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무술가들에게 이러한 권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특별한 통찰력과 힘을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올 바 른 심판의 조건

(제 15회)

심판 뿐만 아니라 선수, 코치에게도 도움되는 시리즈

진취적인, 그러나 현실성 있는 목표 세우기

어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경우 그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나은 업무 수행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목표를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잡지 말라.

심판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자신이 게임에서 완벽하게 심판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는 마치 축구선수에게 모든 골을 집어 넣으라고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지나치게 쉬운 목표를 설정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목표는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한정지어 버리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운다면 당신은 자신의 최고치보다 떨어지는 업무 실적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의 목표가 단순히 특별한 임무를 위해 뽐히기만 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보다 훌륭하게 심판을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거기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목표를 긍정적으로 만들라

당신의 목표를 늘 긍정적으로 나타내라.

즉 당신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대신 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부정적인 행동 쪽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다.

만약 당신이 횡수를 줄이거나 제거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대안적인,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는 목표를 세우라.

예를 들어 당신이 신호를 내리기 전에 너무 오래 머뭇거리는 횡수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머뭇거리지 말자' 라는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 휘슬을 분 후 신속하게 신호하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결단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우라는 것이다.

덧붙여 당신의 긍정적인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상상력을 활용하라.

과거에 결단력이 없었던 때를 상상하고 자신이 휘슬을 불고 재빠르고 결단력있게 확신있는 태도로 신호를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이런 방법은 문제가 있을 법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장단기 목표를 세우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표가 뭐냐고 물을 때 그들은 회사의 사장이니, 백만장자니, 의대에 가는 것 등 매우 야망 있는 장기적 목표를 말한다.

심판들 역시 그러한 원대한 목표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비록 장기 목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단기 목표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필수적이라는 조사와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단기 목표가 당신의 장기 목표를 향해 당신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의 장기 계획이 전문적 스포츠 심판이 되는 것이라면 당신은 단기 목표를 통해 심판 될 때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당신의 단기 목표는 규칙에 대한 지식을 증대하는 것, 보다 결단력 있게 되는 것, 압박하에서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 선수들, 코치들과 의사소통을 더 잘 하는 것, 보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 등을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단기 목표가 각 심판 업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준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 목표를 향한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단기 목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동기 부여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기 목표란 너무 멀리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그 길로만 달려 가기로 한 때로 힘들다.

그것보다는 당신이 심판 보는 매 경기마다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동기 부여가 쉽게 이뤄질 것이다.

이는 모든 게임마다 당신이 늘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기 목표는 당신이 심판 유니폼을 걸치는 매 순간마다 발전 과정을 측정함으로써 어떤 척도를 제공한다.

목표를 기록하라

자신들의 목표를 기록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중

중 그것들을 달성하는 데도 실패한다.

목표를 기록하는 것은 그에 대한 당신의 실행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목표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다.

당신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실행, 노력, 그리고 지속성을 강



▲다른 종목의 뛰어난 심판의 활약을 지켜보며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다시 말해 종이에 당신의 향상도를 기록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 동안 당신이 견딜 수 있게 도와 준다.

당신이 세운 목표의 정확한 수치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목표와 달성도가 적힌 노트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기록 방식은 강력한 동기 유발 인자로 작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문서화된 피드백을 제공한다.

당신은 당신의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 이런 연대기적 기록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기록들은 향상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당신의 목표가 달성하기 너무 쉬운지, 혹은 달



▲심판이 완벽하게 심판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면 심판업무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성할 수 없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들을 확실히 한다

목표가 방향을 제시한다고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짜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컨디션을 향상시켜 각 심판 분야를 통해 업무수행에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라고 치자.

당신은 컨디션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에는 한 주에 적어도 4 번을 40분 동안 운동을 하거나, 하루에 칼로리 섭취량을 500칼로리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당신이 할 바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부가적인 동기부여 전략들

비록 목표 설정이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다른 접근들도 있다.

아래 몇 가지 대안적 접근들을 빨리 훑어보자.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당신에게 효과적인 것이다.

- 모범적인 인물에게서 영감을 찾으라.
- 잘한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상을 주라.
- 사회적 지원망을 개발하라.
- 내재된 동기 부여 의식을 길러라.

모범적인 인물에게서 영감을 찾으라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굉장히 성공한 심판의 업무 수행을 보면서 영감을 찾아낼 수 있다.

마이클 조던, 칼 루이스, 웨인 그레츠키, 슈테피 그라프, 제리 라이스, 잭키 조이너 커시, 또는 돈 매팅리 같은 선수들은 그들의 특출함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스포츠 스타들에게 영감을 준다.

위대한 심판들은 이같은 기능에 복무한다.

훈련 단계에 있는 심판으로서 당신은 짐 터니 Jim Tunney(축구), 데이비드 소사 David Socha(사커), 얼 스톰 Earl Strom(농구), 마티 스프링스테드 Marty Springstead(야구) 같은 뛰어난 심판들로부터 얻을 것이 아주 많다.

당신은 아마추어 수준의 경기에서도 매우 많은 활

러한 심판들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이러한 성공한 심판
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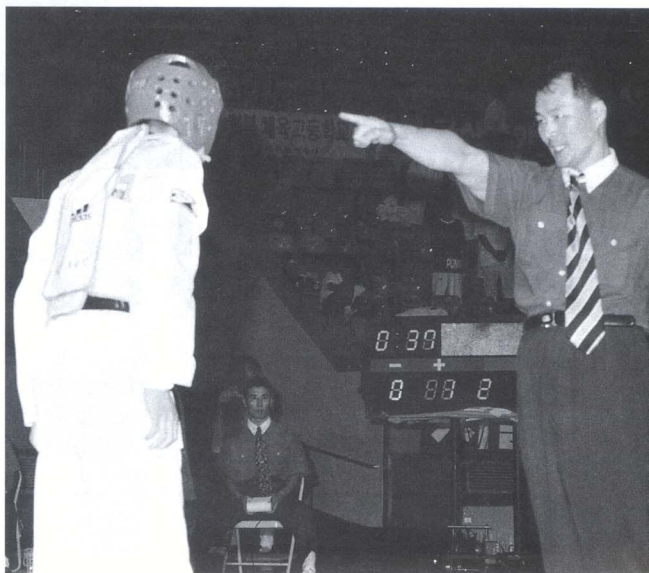
경력기간 내내 동기 부여와
영감의 근원들로서 그들에게
의지하라.

잘한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상을 주라

심판들은 선수들이나 코치
들, 관중들, 또는 미디어에 의
해 칭송되거나 감사를 받는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잘
한 일에 대해 종종 스스로에
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자신에게 스스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상 중 하나는
자기 - 보상 사고(思考), 혹은
자기 대화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별히 잘
해냈다고 생각되는 경기가 끝
난 후 당신 자신에게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일을 잘
조절하는 방법이야',
'난 정말 평정을 잘 유지했어', 혹은 '난 매 게임마
다 더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하라.
이런 보상성 자기 독백은 경쟁적이고 전문적인 일



▲태권도 경기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심판의 모습.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지라도 당신은 그 리그 집행부로부터 보수 외
의 어떤 옷돈도 받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
이 정말 훌륭하게 심판활동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고 달성도를 기록하는 습성 길러야 스스로에 대한 칭찬은 성취감과 좋은 느낌을 줘

을 하는 데 있어 성취감의 따뜻하고 좋은 느낌들을
느끼게 해 준다.

이런 유형의 자기 보상은 좋은 느낌들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동기 부여와 실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준다.

자기 칭찬을 통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는 것 외
에도 당신은 물질적인 보상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당신이 정말 크고 중요한 경기에서 심판을 보았다

심판 자신이 영화를 보러 나가고, 자신을 위해 몇
벌의 옷을 사고,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음식
을 먹고, 특별한 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티켓을 사
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보상해 주는 몇 가지 방법
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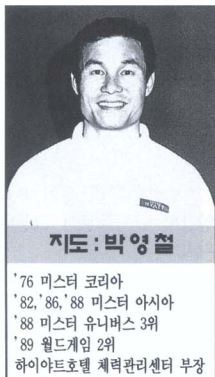
이런 작은 보상들은 일을 잘했다는 실제적인 인식
을 주고 보다 즐겁고 만족한 심판 업무 환경을 만
들어 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전문가가 지도하는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 국가원 심사위원)

태권도를 위한



지도 : 박영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컵 2위
하이아트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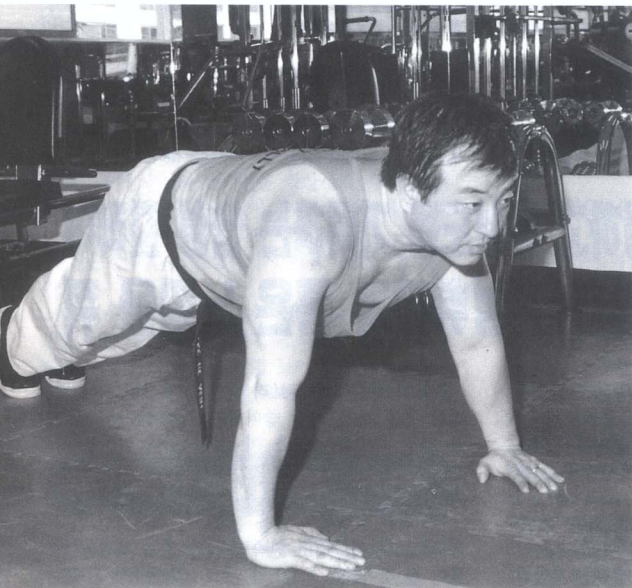
웨이트 트레이닝

아

주 무거운 무게를 사용할 때 동작 중에는 호흡을 멈추고 매번 동작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호흡을 실시하는 것이 집중력과 조정력, 또 힘을 안배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다.

팔굽혀 펴기

PUSH UP



◀ 자세 ▶

- ① 두 팔을 어깨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두 손은 손가락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바닥에 위치한다.
- ② 두 다리를 몸 뒤쪽으로 뻗어서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발가락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 ③ 이때 상체는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두 손은 어깨에서 수직인 선상에 위치하도록 한다.

◀ 동작 ▶

- ① 팔꿈치를 몸 바깥쪽으로 구부리면서 상체와 다리를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내려뜨린다.
- ② 구부러진 팔꿈치를 펴면서 팔힘만으로 상체와 하체를 위로 밀어 올린다.

《 호흡 》

①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상체와 하체를 바닥으로 서서히 내려 뜨린다.

②입으로 내뿔으면서 팔꿈치만으로 상체와 하체를 원위치로 밀어 올린다.

《 반복횟수 》

만일 동작에 무리없이 20번 이상을 실시할 경우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등에 바벨 원판을 올려놓고 실시하거나 또는 파트너가 양쪽 어깨를 손으로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실시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주의점 》

①동작을 실시하는 동안 상체와 하체가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즉 일직선 상태에서 상하로 움직이도록 한다.

②위와 같은 동작으로 팔굽혀펴기가 불가능할 경우 양쪽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고서 실시한다.

③호흡은 일정하게 실시하며 매번 심호흡을 하는 것이 흉곽을 더욱 확장시켜 대흉근에 더 큰 운동효과를 가져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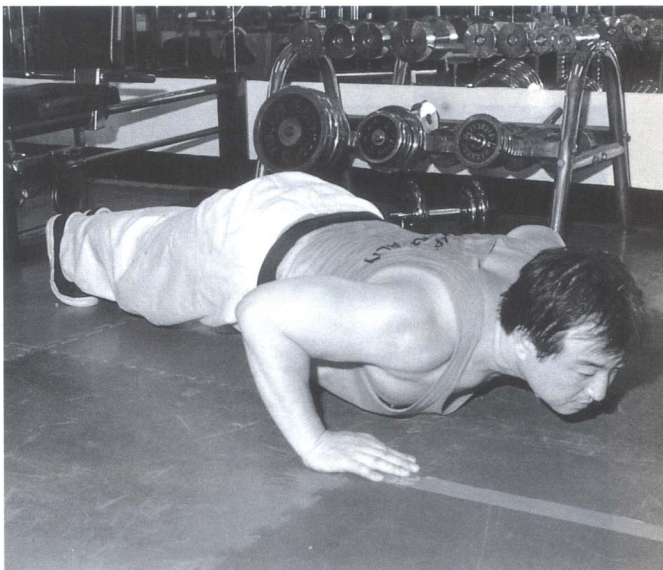
④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상체나 하체가 바닥에 닿아서는 아니되며 대흉근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몸 바깥쪽으로 구부러지도록 한다.

《 응용동작 》

①위와 같은 자세로 팔굽혀펴기가 불가능하면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고 실시할 수 있으며 몸을 45도 정도 구부려 책상 모서리를 두손으로 잡고서 실시한다.

②보다 저차단 운동범위를 사용하려면 바닥에 어깨넓이 정도로 벽돌 2장을 놓고 두손을 벽돌 위에 놓고 운동을 실시하면 대흉근에 스트레치 효과를 주어 더 큰 운동효과를 얻는다.

③팔꿈치를 몸쪽으로 구부리느냐 혹은 몸 바깥쪽



으로 구부리냐에 따라 발달근육이 달라진다. 즉, 팔꿈치를 몸쪽으로 구부리면 상두근쪽으로 자극을 주게되고, 몸 옆쪽으로 구부리게 되면 대흉근이나 삼각근 쪽으로 자극이 옮겨가게 된다.

④두 손의 넓이가 좁아지게 되면 대흉근 안쪽으로 자극이 옮겨가게 되며 두 손의 위치가 넓어질수록 대흉근 바깥쪽과 삼각근, 즉 어깨 앞쪽 근육으로 자극이 옮겨진다.

《 발달 근육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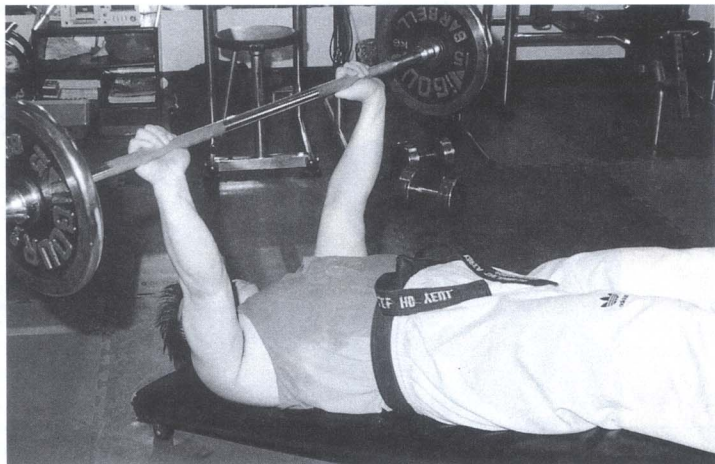
- 대흉근
- 소흉근
- 삼각근
- 광배근
- 삼두근
- 전거근

《 발달 시키는 동작 》

- ①편치의 파괴력 강화
- ②멀리 던지기의 효과
- ③물체를 밀치는 동작의 강화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

DECLINE BENCH PRESS



⑤두 손을 70cm 내지 90cm 사이로 벌려서 바벨을 잡도록 한다.

◀ 동작 ▶

①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팔꿈치를 서서히 구부려 바를 가슴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내린다.

②가슴 아래쪽에 거의 닿을 때 입으로 숨을 내쉬며 바를 수직으로 밀어 올린다.

◀ 자세 ▶

- ①디클라인 벤치에 등을 대고 눕는다.
- ②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발목걸이대에 발을 놓아서 발목이 걸리도록 한다.
- ③디클라인 벤치에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시업(SIT-UP)보드를 사용한다.
- ④바벨을 가슴 아래쪽에서 수직으로 들어올리도록 한다.

◀ 적정무게와 반복횟수 ▶

바른 동작으로 흔들림없이 10번 내지 12번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한다.

◀ 주의점 ▶

- ①동작을 행하는 동안 무릎은 항상 구부려져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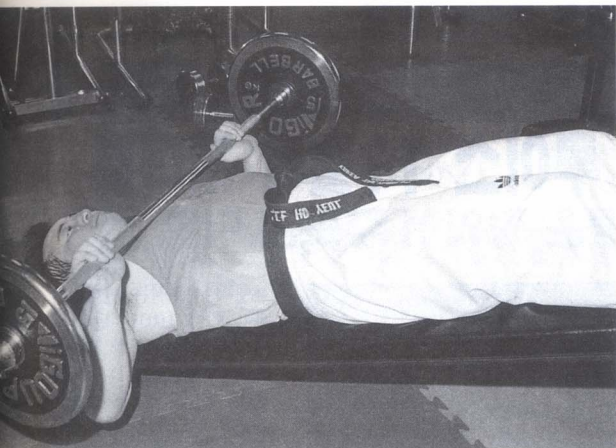
트레이닝 도움말

운동능력을 강화하려면 심폐지구력, 즉 에어로빅스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이므로 운동 중에 산소부채 즉, 쉬지않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에어로빅스 능력, 심폐지구력을 발달

시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산소를 근육세포로 공급시킬 수 있어 운동과 운동 사이의 휴식시간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② 바를 가슴 윗쪽으로 내리게 되면 어깨 관절이 지나치게 신전되어 부상을 입기 쉽다.

③ 시엣 보드에서 실시할 경우,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시작과 끝나는 동작에서 바벨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④ 바가 가슴 아래쪽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을 취하도록 한다.

◀ 용용동작 ▶

① 벤치의 각도를 조정함에 따라 대흉근의 부위별 발달을 피할 수 있다. 즉 각도가 깊어질수록, 대흉근 아래쪽과 바깥쪽에 자극을 유도하며, 벤치의 각도가 얕아질수록, 즉 평평해질수록 대흉근 중간 부위로 자극이 옮겨간다.

② 상기의 운동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평행봉에서의 팔굽혀 펴기 운동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발달근육군 ▶

- 대흉근(아래쪽, 바깥쪽)
- 소흉근
- 삼각근(앞부분)
- 삼두근
- 전거근

◀ 발달동작 ▶

- 펀치력의 강화
- 격파력 강화(하단 격파)



▲ 태권도 경기에서는 점근전을 펼치는 경우가 흔하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주먹공격을 위해서 팔굽혀 펴기나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로 힘을 기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새로운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막을 내리게 될 20세기는 인류문명에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일으켰던 세기다.

정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군주제(君主制)로부터 공화제(共和制)로 바뀌었고 식민지들이 잇따라 독립을 이룩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했던 사회주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무너져갔고 결점이 많은데도 자본주의는 그 결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살아남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복싱, 레슬링, 야구, 럭비, 아이스하키 등 종전에는 남성들만의 스포츠로 여겨졌던 종목들에 우먼파워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날에는 여성이 스포츠를 하면 여성다운을 잃게 된다는 남성들의 편견이 여성들로 하여금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교육자였던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고(故) 꾸베르망 남작(프랑스)은 교육의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이 스포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꾸베르망은 올림픽의 여자 종목 채택에는 소극적이었다.

20세기는 여성이 스포츠에 진출한 세기

다음 세기를 여성 태권도 보급의 세기로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한편 공해(公害)의 심화(深化), 자연환경의 파괴 등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통기관과 통신의 눈부신 발달은 각 민족, 각 국가 사이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를 촉진시켜 그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후반에 한국의 태권도는 온 세계에 빠른 속도로 퍼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까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만을 놓고 볼 때는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 하면 여성들의 스포츠 진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여자 마라톤은 '84 로스앤젤레스, 여자 유도는 '92 바르셀로나, 여자 축구는 '96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이미 채택됐고 여자 태권도는 남자 태권도와 함께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올림픽 종목의 대열에 끼어든다.

여자 역도도 시드니 올림픽부터는 정식종목이다.

그러나 초기의 올림픽에도 여자 종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96년 아테네에서의 첫번째 올림픽에는 여자 종목이 없었으나 1900년 파리에서의 제 2회 올림픽에서는 여자의 테니스와 골프가 치러졌다.

1908년 런던에서의 제 4회 올림픽에서는 여자의 양궁이 보태졌고 피겨 스케이팅도 치러졌다.

(1924년 샤모니에서 첫번째 동계 올림픽이 치러지기 전 이미 피겨 스케이팅은 하계 올림픽에서 치러진 것이다.)

1912년 스톡홀름에서의 제 6회 올림픽에서야 처음으로 여자 수영이 채택됐으나 세부 종목은 자유형 100m와 400m 릴레이, 그리고 하이 다이빙의 3가지뿐이었다.

그때까지만해도 모든 스포츠의 기본 종목이라 일컬어지는 육상의 여자 종목은 올림픽에 없었다.

그때 프랑스에 알리스 밀리아 여자라는 열성적인 여성체육지도자가 있었다.

꾸베르탱을 비롯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나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임원들이 여성 스포츠를 외면하는 데 불만을 느낀 밀리아 여사는 1921년 국제여자스포츠연맹을 창설하고 스스로 회장에 취임한 뒤 1922년 파리에서 제 1회 여자올림픽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경기 종목이 육상뿐이었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체코 등이 참가했다.

IOC는 이 대회가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항의했다.

그래서 밀리아 여사는 1926년 스웨덴의 요테보리에서 개최한 두번째 대회부터 명칭을 「국제여자경기대회」로 바꾸었다.

제 3회 대회는 1930년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렸다.

밀리아 여사와 IOC 사이의 논쟁은 1927년야구 경우 매듭이 지어졌다.

그 결과 1928년 암스테르담에서의 제 8회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여자육상경기가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이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여자 800m에서 골에 들어온 9명의 선수들이 모두 기진맥진해서 필드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임원들은 800m 레이스가 여자에게는 무리라고 판단해서 여자 종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버렸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1960년의 로마 올림픽에서 여자 800m는 부활했다.

2차 대전 이후 눈부시게 진보한 스포츠의학이 알맞는 트레이닝만 쌓는다면 800m는커녕 1000m, 3000m조차 여성들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참가에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여성의 스포츠전(戰)이 확장된 것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서야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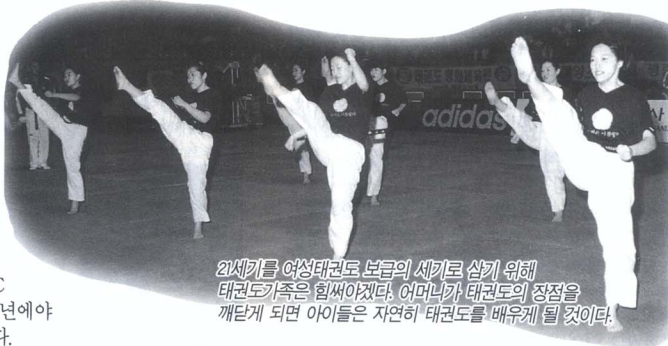
여자 마라톤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2년의 보스턴 마라톤대회부터다.

여성이 마라톤을 달리게 된 것은 여성의 체력이 갑자기 향상되어서가 아니다.

여성들에게 마라톤을 달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회만 주어지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자 마라톤은 증명한 셈이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이하라 교수는 『오늘날처럼 여자 스포츠가 융성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 여자가 스포츠를 하더니 - 혹은 여자가 스포츠 같은 것을 하면 말팔량으로 여겨져 시집가기 힘들어진다. - 는 등의 사회적 가치관의 방해를 꼽을 수 있다.



21세기를 여성태권도 보급의 세기로 삼기 위해 태권도가족은 힘써야겠다. 어머니가 태권도의 장점을 깨닫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태권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스포츠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현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셈이다.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정전기제품의 발달, 가공도(加工度)가 높은 음식물의 보급, 가족계획에 의한 자녀수의 감소 등으로 여성도 사회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성의 스포츠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 엘리트스포츠의 마당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체육의 마당에서도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조깅, 등산 등을 즐기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스포츠 진출이라는 사회적 현상 속은 다음 세기에도 가속(加速)될 것 같다.

수영, 무용, 체조처럼 신근(伸筋=뻥은 근육)을 많이 씬으로써 몸매 가꾸기에 도움이 되고 호신술 익히기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여성 태권도의 보급에 태권도가족들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자면 여성들이 마음놓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샤워룸, 탈의실, 화사한 분위기의 도장) 마련과 능력있는 여성 지도자의 확보, 그리고 음악을 곁들인 태권도 에어로빅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서울특별시협회

성동구,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 구청장기 대회 개최

서울시협회 산하의 4개 구협회가 지난 6월 구청장기대회를 각각 개최했다.

구협회 소속 일선 도장 수련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구청장기대회는 태권도 겨루기 뿐만 아니라 품새대회, 태권 체조와 시범 등이 다양하게 펼쳐졌고 학부모들의 체육행사도 곁들여 태권도 가족 한마당 축제가 되었다.

■**성동구**=대회명: 제 4회 성동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태권도 겨루기대회 / 대회일: 99. 6. 13(일) / 장소: 성동구민체육센터 / 참석인원(선수): 504명 / 대회장: 김동철 / 명예대회장: 성동구청장 고재득 ■**강남구**=대회명: 제 4회 강남구협회장기 태권도 겨루기대회 / 대회일: 99. 6. 19(토) / 장소: 국기원 / 참석인원(선수): 500명 / 대회장: 조근형 / 명예대회장: 강남구청장 권운용 ■**양천구**=대회명: 제 1회 양천구청장기 태권도 경연대회 / 대회일: 99. 6. 20(일) / 장소: 양천구민체육센터 대강당 / 참석인원(선수): 630명 / 대회장: 서정복 / 명예대회장: 양천구청장 허완 ■**서초구**=대회명: 제 3회 서초구청장기 타기 태권도 경연대회

/ 대회일: 99. 6. 26(토) / 장소: 국기원 / 참석인원(선수): 700명 / 대회장: 고동준 / 명예대회장: 서초구청장 조남호 <김현태 리포터>

부산광역시협회

제 3회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부산협회는 지난 6월 27일 구덕체육관에서 '99 제 3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응심자 3천2백여명은 관계자 및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동안 수련해온 자신의 기량을 진지하게 선보이며 엄숙히 진행되었다. 이근우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



▲6월 27일 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된 승품단 심사대회 모습.

화제의 인물

마포 성산체육관 이성룡 관장

불우이웃돕기와 지역사회발전에 앞장

서울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불우이웃돕기와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온 마포 성산체육관의 이성룡 관장이 지난 6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했다.

이관장은 불우청소년에게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이웃에 홀로 계신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용돈을 드리며 보살펴왔고 매년 2차례씩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지체부자유자들이 거주하는 천사의 집을 방문, 의류와 식료품 등을 전달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한 이성룡 관장(왼쪽).

하는 등 불우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앞장서 왔다.

이성룡 관장은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함께 부상으로 받은 상금 100만원도 라면을 사서 이웃의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관장은 "태권도 관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더욱 자주 불우한 이웃을 돌아

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사를 통하여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 태권도인들이 더욱더 모범을 보여 중주국인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제 24회 부산광역시 교육감기대회 개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구덕체육관에서 열린 교육감기대회 모습.

부산협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구덕체육관에서 제 24회 부산광역시 교육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초·중·

고등학교 선수 1,150여 명과 교육청 관계자 및 태권도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불굴의 투혼으로 대전에 임하는 선수들은 저마다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여 3일간의 열전을 성료하였는데, 특히 중등부 반여중학교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과 학부모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단체성적>

▲남초부 1위 하남초 / 2위 연일초 / 3위 명지초
▲여초부 1위 신재초 / 2위 청동초 ▲남중부 1위 반여중 / 2위 영남중 / 3위 백양초 ▲여중부 1위 동여중 / 2위 다산중 / 3위 동래여중 ▲남고부 1위 동천고 / 2위 덕원공고 / 3위 개금고 ▲여고부 1위 부산체고 / 2위 금정여고 / 3위 부흥고

<부별 우승자 명단>

▲남초부 반효준(토현초), 안정목(해운대초), 장병필, 김두철(이상 하남초), 오승용(효림초), 신승운(명지초), 민병용(백상초), 이화승(반여초), 양현석(연일초), 김태훈(사남초), 박차오름(정관초), 박정환(덕상초), 서민호(서천초) ▲여초부 박소진(덕상초), 한윤진(서감초), 이소현(거학초), 박현진(해송초), 배유리(신평초), 박민지(동향초), 조혜린, 양재림(이상 신재초), 장윤정(가야초), 이서진(장전초), 정원범(구명초) ▲남중부 강대범, 김기훈, 문광우(이상 영남중), 박재현(덕원중), 김형민, 최안진, 홍

동욱, 김방식, 이유환(이상 반여중), 채병석(백양중), 이승수(항도중) ▲여중부 이예림(구포중), 김민정, 임주영, 하정연(이상 동여중), 최승진(광무여중), 정경미, 김미진(이상 다산중), 김은미(낙동중), 김민정(선화여중), 심영모(백양중), 오지숙(구서여중) ▲남고부 설경재, 박현철, 류기병(이상 덕원공고), 홍준수, 김철민(이상 동천고), 황원영(개금고), 허윤찬(남고), 박성호, 황선규(이상 체고) ▲여고부 권소라(한독여실), 권현진, 김진희, 장윤정, 고진숙(이상 체고), 이정란, 김기화(이상 금정여고), 장영희(부흥고)

부산 국제체조대회 개막식 공개행사 배정초등학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공연

문화와 예술의 도시, 그리고 젊음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한국 제 1의 항구도시 부산에서 제 1회 삼부 파이낸스컵 국제체조대회 월드컵 예선대회가 개최되어 부산배정초등학교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이 지난 6월 23일 개막식 식전행사에 특별초청되어 시범경연을 하였다.

이번 대회는 2000년 월드컵 체조선수권대회 본선 출전 예선전을 겸한 대회로 세계 정상의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대회로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부산시립무용단의 공연과 댄스그룹 인기가수인 "코요테"의 공연에 이어 배정초등학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이 펼쳐졌다.

21명의 어린이 시범단은 "김현정"의 노래 "혼자한 사랑"에 맞춘 흥겨운 권무를 시작으로 송판 격파를 하나 하나 실수없이 연출하자 1만 3천



▲6월 23일 부산시직 체육관에서 배정초등학교 어린이 시범단이 멋진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여명의 관중들이 열광적인 박수 갈채를 보내주었다. 15분간의 숨막히는 시범을 끝내고 대기실로 이동하는 중에 어린이들은 러시아 선수로 마루체조 세계 1위 "네모프 알렉세이" 등 세계적인 체조선수들의 포옹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순효준 리포터>

광주광역시협회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광주태권도협회는 3차 승품(단) 심사대회(제 76회)를 6월 13일에 1품부터 5단까지 800여 명의 응심자가 참가한 가운데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실시하였다. 심사에 앞서 한길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하여 제 1회 5·18 추모기념 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데 대하여 협회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태권도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을 모아 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지난 4월에 열렸던 2차 심사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여준 10명(품새 5명, 겨루기 5명)을 선발하여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이날 심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한국체육관 16도장(임경숙 관장) 어머니태권도교실의 주부 6명이 응심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심사가 끝나고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들은 모두 30대 전·후반의 가정주부로서 자녀들을 모두 태권도장에 보내 수련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도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또한 생활중에 받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세들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며 밝게 웃었다.



▲ 6월 13일 승품·단 심사대회에서 어머니태권도교실 주부 6명이 심사를 끝나고 기념촬영을 했다.

광주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식후행사 어머니태권도단 「태권로빅」 선보여

6월 19일에는 광주시장기 생활체육축제가 광주일원에서 열렸다. 어머니단원 20여 명이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접목시킨 태권로빅을 생활체육축제 식후행사에서 멋진 시범을 펼쳤다.

태권로빅은 한국체육관 임경숙 관장과 김동희 사범의 지도로 진행되었는데 주부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일선지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

광주협회 박원중 전무이사는 앞으로의 태권도 발전방향은 선수들의 경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부 및 성인층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태권도교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태권도로 정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태권왕대회 및 체전 1차대회 개최

광주태권도협회(회장 한길진)는 6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구동체육관에서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올해로 13회째 맞이하는 초·중학교 대항 태권왕기 겨루기대회를 개최하였다.



▲ 제 13회 태권왕기대회 최우수선수 지도자상 수상자들.

태권왕기대회는 처음에는 초등부에 한해 대회를 치러 오다가 5년 전부터 초등부를 4학년 이하의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세분화 하고 중등부를 신설하여 3개 부문으로 구별하여 대회를 치르고 있다.

전국소년체전에서 정식종목이 된 초등부 2~3년 사이에 초등학교 태권도팀 창단이 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그만큼 선수들의 실력도 향상되면서 각 학교마다 평균화되고 있는데 지난 5월하순 제주도에서 열렸던 제 2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광주팀은 초등부에서만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저학년부는 8개체급에 120여 명, 고학년부는 11개체급에 150여 명이 참가하여 소속학교의 명예를 걸고 힘찬 응원전이 벌어졌다. 오치초교, 금호초교, 학운초교, 상무초교 등 태권도 육성학교 선수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는데 소년체육대회 금메달의 주인공인 라이트급 김성모(금호초교)선수와 웰터급 최성필(오치초교)선수가 예상대로 빠른 발차기와 돌려차기 등을 구사하여 상대선수들을 여유있게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중등부는 태권도육성팀 100여 명의 남녀중학교 선수들이 출전하여 금메달 5개를 획득한 문성

중학교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모든 대회를 석권하는 쾌거를 보여주었다.

한편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게 되는 제 80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고등부 이상, 대학, 일반부, 여자부, 여고부 등 5개 부문에 130여 명의 남녀선수가 참가하여 광주대표를 선발하는 1차 예선대회를 겸하여 실시하였다. 이들중 각 체급 1·2위에 선발된 선수는 7월초에 2차예선을 통과한 1·2위자와 최종선발전을 거쳐 무등경기장 태권도훈련장에서 합숙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태권원기 초·중학교 종합성적>

▲초등부(저학년) 1위(오치), 2위(운천), 3위(어등)

▲고학년부 1위(금호), 2위(송우), 3위(울곡초)

▲중등부 1위(문성), 2위(고려), 3위(체육)

<각 체급별 우승자 명단>

▲초등부(저학년) 오영윤(운천초), 김양현, 주효성, 허정욱(이상 오치초), 주진성(서석초), 유동기(화정남초), 윤주열(울곡초), 최명화(백운초) ▲초등부(고학년) 박건희(울곡초), 문재영, 김성모, 김홍(이상 금호초), 정민국(효광초), 서기원, 조용환, 최성필, (이상 오치초), 조경준(송정서초), 김경민(송우초), 주해성(동산초) ▲중등부 황연성, 김정철, 고영권, 이준은, 서정민(이상 문성중), 장근동, 김열이, 강명구, 박대현, 고운석 (이상 고려중), 김수일(체육중)

<각부별 최우수선수(태권왕) 및 지도자상>

▲최우수선수 김양현(오치초), 김홍(금호초), 김정

철(문성중) ▲지도자상 백성재, 문병영, 장부식
<이병도 리포터>

재브라질 대한태권도협회

제 4회 태권도 무료 강습회 실시

제브라질 대한태권도협회(회장 박제강)에서는 겨울방학 기간 7월 1일~30일까지 1개월 동안 교포 자녀를 위한 특별 태권도 무료 강습회를 실시했다.

경상북도협회

포항에서 대통령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

경북태권도협회(협회장 강석호)가 주관하고 경상북도 포항시가 후원한 가운데 제 3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및 제 29회 협회장기 전국남·여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5일간)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도시 포항은 올해로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행사로 전국대회를 유치, 시내 곳곳에 대형아치탑과 꽃탑을 만들어 포항을 찾은 임원, 선수단을 맞이했다.

강석호 회장은 6월 17일 오후 6시 30분 포항의 시그너스 호텔 연회장에서 전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한체대 태권도시범단 창단

"태권도 문화를 알리는 선도적 역할 다할 것"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이상철)가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했다. 한체대는 지난 6월 7일 학내 운동장에서 이승만 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이승국 한체대 교무처장 등 태권도 관련 인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했다. 이날 창단식에서 이상철 총장은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문화이자 세계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문화"라며 "앞으로 태권도 시범단이 국내 외에 태권도 문화를 알리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승만 상임부회장은 "한국 엘리트 체육의 신실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창단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이 깊다"며 "국내 태권도의 보급, 발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태권도의 가치를



▲ 창단식을 가진 한체대 시범단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널리 알리는 선도자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범단 창단을 축하했다.

한체대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학과(학과장 안용규)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 35명으로 구성됐다.



환영연을 베풀고 태권도인들간의 단합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태현 리포터>

강원도협회

도민대회 겸 전국대회 도대표 2차 선발전

제 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제 80회 전국체육대회 2차 선발대회가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동해 제 1합대 사령부 체육관에서 열렸다.



▲도민체전 겸 체전 2차선발전은 질서있게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18개 시·군지부의 고등부(남·여 171명), 대학부(118명), 일반부(남·여 185명) 5개부에 총 484명이 참가해 선수들이 향토 시·군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펼쳤다.

경기 결과 1부 종합순위는 1위 춘천시, 2위 강릉시, 3위 원주시, 2부에서는 1위 철원군, 2위 양구군, 3위 인제군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제 80회 전국체육대회 2차 선발대회를 겸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국대회 감각을 키우기 위해 국제대회 방식으로 개최했고 심판들도 엄정한 경기운영과 각팀 감독, 코치들의 항의 없이 질서있게 치러졌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99년 강원소년체육대회에서 활약한 우수심판 2명(인제군 박봉교, 영월군 조영복)에게 우수심판상을 수여하였다.

<원재용 리포터>

충청북도협회

승품·단 심사 개최

충북 태권도 협회(회장 전종운)에서는 6월 19일 영동, 보은, 옥천지역(131명)을 시작으로 6월 20일 제천, 충주, 단양 지역심사(302명), 6월 27일 청주, 청원, 음성, 진천, 괴산지역(904명) 승품·단 심사를

청주 국민생활체육관에서 실시하였다.

어느 심사 때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심사에서 어린 응시자들이 절도있는 동작으로 품새를 보이자 관중들은 아낌없는 격려 박수를 보냈다.

심사에 앞서 정의진 부회장은 심사에 임하는 응시자들에게 “지금껏 수련해온 대로 침착하게 심사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품새 심사위원은 정의진, 김운환, 겨루기 심사위원은 오명세, 박정규, 총지휘는 권영호 씨가 맡았다.

<김경수 리포터>

전라남도협회

제 10회 시군대학 친선체육대회

도내 각 시군지회 이사 및 체육관장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공설운동장에서 6월 6일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단체성적은 1위 담양군, 2위 나주시, 3위 영광군이 차지했다.

동부지구 승품·단 심사대회

6월 26일 순천북초등학교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여 총 233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하였다. 품, 단별로 보면,

1품 - 134명, 2품 - 96명, 3품 - 25명, 4품 - 2명
1단 - 13명, 2단 - 8명, 3단 - 14명, 4단 - 1명이다.

제 21회 교육감기대회 개최

광양실내체육관에서 6월 26일 ~ 27일 2일간에 걸쳐 초등부 7팀 145명, 남중부 8팀 166명, 남고부 7팀 56명, 여중부 48명, 여고부 15명으로 총 6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21회 전남교육감기타기 초·중·고등학교 남녀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단체성적>

▲1위 - 부영초, 여수중, 광양고 ▲2위 - 무선초, 법성초, 여수고 ▲3위 - 동산초, 이수중, 목포상고
▲감투상 - 한려초, 여천중, 순천공고 ▲장려상 - 장평초, 연향중, 금일중, 압해중고, 영주중고

<개인성적>

▲초등부 임원승(노화중앙), 김동원(녹동), 신용찬(광영), 유자훈(부영), 최석현(동산), 진해운(목포



동), 강성룡, 신대수(이상 부영), 조상연(한려), 이상진(산정), 허준영(연향) ▲**남중부** 윤승열, 이태욱(이상 연향), 김현민, 김형식, 구덕민(이상 여수), 박울성(법성), 김형진(이수), 권남호(동광양), 전유정(진월남), 조재훈(백양) ▲**남고부** 김동근, 김정훈, 유승현, 전부준(이상 광양), 남운해, 정채길(이상 순천공), 이상규, 이민수(이상 여수) ▲**여중부** 김옥경(정명여), 이경진(동산여), 채소라(남산), 문혜민(수복), 마성심(황산), 문나래(법성), 최상아(동광양), 조진욱, 선효정(이상 연향), 김효영(도화), 임윤정(보성여) ▲**여고부** 김현욱, 김수경, 윤현주, 김현미, 이은혜, 선경옥(이상 목포상)

〈홍명숙 리포터〉

제주도협회

정기 승품·단 심사

6월 정기 승(품)단 심사가 6월 12일(토) 오후 3시에 제주시 시민회관과 서귀포시 '88 율림피킴 국민생활관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1품 265명, 2품 85명, 3품 27명, 4품 4명, 1단 114명, 2단 10명, 3단 18명, 4단 6명, 5단 1명 등 총 530명이 참가했다.

제 6회 초등연맹회장기대회 개최

제주북교와 제주동교가 제 6회 초등연맹회장기 전도초등학교 태권도대회에서 나란히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제주도태권도협회(회장 고우방), 제주도 초등학교 태권도연맹(회장 홍가운) 공동주최로 6월 26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 남자부 경기에서 제주북교는 금 2 은 1 동 1개를 획득, 삼양교(금 2 동 2)의 추격에서 벗어나며 종합우승을 차지,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여자부에서는 제주동교가 금 6개를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위미교는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남자부에서 김경대, 여자부에서 김가영이 받았고 지도상은 남자부에서 신문진, 송기용(이상 제주북교), 여자부에서는 서승필, 김완택(이상 제주동교) 씨가 받았다.

〈종합상적〉

▲**남자부** 1위 제주북교 / 2위 삼양교 / 3위 효돈교 / 장려상 위미교 / 최우수선수상 제주북교 김경대 / 지도자상 제주북교 교사 신문진, 제주북교 코치 송기용 / 우수심판상 오현미, 전철운

▲**여자부** 1위 제주동교 / 2위 제주중앙교 / 최우수선수상 제주동교 김가영 / 지도자상 제주동교 교사 서승필, 제주동교 코치 김완택

〈서출별 우승자〉

▲**남자부** 김천규(신촌교), 강필권(어도교), 송문철, 강동호(이상 삼양교), 오정호(창천교), 오정일, 유정봉(이상 효돈교), 오영택(위미교), 진동조, 김경대(이상 제주북교), 이성규(화북교) ▲**여자부** 오진옥(서귀북교), 박민주, 김주영, 이미선, 김소은, 김가영, 김수현(이상 제주동교), 김수정(삼성교), 강하은(남광교), 오사랑(중문교), 현아선(제주중앙교)

〈공철국 리포터〉

「태권도 미학 개론」 출간 하태은·임일혁 공저

육군사관학교 하태은 교수와 탐라대학교 태권도학과 임일혁 교수가 공동으로 『태권도 미학 개론(21세기 교육사)』을 펴냈다.

이 책은 태권도에 미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태권도 품새의 정적미와 동적미, 겨루기에서의 극적이고 현란한 발기술을 고도의 미로 표현하고 있으며, 시범을 공간과 시간의 미와 선(線)의 미로 정의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미학이론의 체계 탐구 ▲동양무예의 미적 특성(중국·일본·한국의 무예(武藝)적 미(美)를 탐구) ▲태권도 미의 본질 ▲품새의 미적구조 ▲겨루기의 미적구조 ▲시범의 예술적 세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임일혁 교수는 "태권도 미학에 대한 첫 시도이고 많은 부분에서 이론적, 논리적 비약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태권도 전공자들의 학문적 관심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서 페이지

소식과 작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에 관해 겪은 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본지에 대한 희망이나 건의 등 무엇이든 좋으니 보내주세요.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등은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해서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편의시설 A-3동) 「월간 태권도」 편집실
- ◆전화 : 420-4568
- ◆팩스 : 420-4274
- ◆이메일 : DKY@KOREATAEKWONDO.ORG

PC 태권도

다음은 대한태권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KOREATAEKWONDO.ORG) 자유로토론장과 방명록, E-mail에 올린 글입니다.

태권도 경기장에 관중이 모여들게 하려면...

sjc11@chollian.net

축구나 야구나 농구, 배구...

그런 경기장을 볼 때면 언제나 태권도 경기장을 생각해 봅니다.

태권도도 얼마든지 인기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태권도 경기장을 팔각형으로 만듭니다.

(동양사상과 어울리는 팔괘의 뜻을 담아 경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서 링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

2. 전광판은 더 크게, 득점은 깃발(청색, 홍색)을

사용하여 관중에게 득점의 설득력과 이해력을 높이자.

3. 득점은 현행 무조건 1점제로 실시되고 있다.

일부 몇몇 태권도인들이 다득점제를 주장했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태권도 경기가 관중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다득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1) 주먹과 몸통 공격은 1점

(2) 얼굴 공격은 2점

(3) 몸이 허공에 뜬 상태에서 득점에 성공할 경우에는 3점 등.

4. 선수와 심판의 도복(경기복)을 한복형태로 바꾸자. 태권도는 우리 문화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금 더 전통성이 있고 뜻이 담겨있는 도복을 고찰하여야 한다.

5. 1970년대 과거 이소룡이라는 영화배우 한 사람에 의해 중국무술은 급격히 인기를 타고 쿵후 붐

“우리 가족 모두가 태권도를 배우길 원한다”

KB(외국인 수련생)

매우 유익한 사이트였다. 난 2년간 태권도를 배웠으며 내년쯤 검은 띠를 땀으면 하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

난 태권도가 진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으며 지금의 태권도는 내 생활양식이다.

또한 더 나은 내 자신을 만드는 태권도를 정말로 즐기고 있다.

난 내가족 모두가 태권도를 배우길 원한다. 내 9살난 딸은 노란 띠이며 내 11살난 딸은 파란 띠이다. 솔직히 그들이 어렸을 때 난 내 아들만 배우기를 원했다.

그러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후로 내 딸들의 생활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모든 태권도 가족들 - 하이팅!

위의 글은 지난 6월 2일 대한태권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방명록에 KB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이 올린 글을 번역해 올린 것입니다.

을 일으켰다. 스타를 만들고 영화와 대중매체 산업에 투자를 하자.(할리우드와 홍콩에는 스타를 위해 영화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무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세울만한 변변한 태권도 스타가 없다.)

“최근 사진자료 올려주세요”

박인영

안녕하십니까?

태권도를 무지 사랑하는 단국대학교 전자계산학과 3학년생입니다.

지금은 태권도 3단이고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웹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데, 갤러리에 있는 자료는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특히 무비란에 있는 겨루기 동영상에 관한 것인데, 굵직한 국제대회나 최근의 국내대회를 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어릴 때 승품... 단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현직

문 어릴 적에 2품을 땀데 품번호나 심사일자를 모릅니다. 15세 이상이 되면 단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단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 국기원 전산실에서 단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품번호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기원 전산실(567-1058~9)로 하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장 직업인의 윤리의식

“천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자”



이인재

부산태권도협회 동구지회장

태권도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짊어질 후배들의 인성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사명감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아실현을 위한 '천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그 일

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천직사상」을 갖고 일할 때 태권도라는 교육적·사회적 역할 분담이 확실해지며 내·외부로부터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를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도장에서는 관원모으기와 무분별한 상업성 프로그램에 마냥 현혹되어 무

도 스포츠의 본질이 자꾸 퇴색되어 버리고, 사범이라는 내면적 인격적 가치와 주체적,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외면적인 것에 밀려 보습학원 선생님처럼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돌이켜 보면 과거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태권도는 세계속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일선 사범들의 내면적인 직업윤리, 의식수준과 가치관 재무장을 위해 집진적인 교육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못했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일선 사범들이 태권도라는 직업을 「천직」이라는 소명(召命)을 가지고 곳곳에 일할 때 비로소 그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올바른 태권도 윤리의 직업관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진정 지도자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김운용 회장, 제 109차 IOC 총회 성공리에 마쳐

“21세기 올림픽 운동 비전 제시”

6월 12일 ~ 20일 (서울)

김운용 회장은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 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 109차 IOC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금세기 마지막 IOC 총회로 새로운 천년 21세기 올림픽운동의 청사진을 마련한 이번 총회에는 100여 명의 IOC 위원들과 4천여 명의 국제 스포츠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운용 회장은 총회 일정 중 태릉선수촌에서 IOC 위원들에게 태권도시범을 보이는 등 태권도를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6월 1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IOC 총회 개회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109차 IOC 총회 개회식에서 사미란치 IOC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회식에서 21세기 올림픽운동의 비전을 제시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운용 회장.

태권도 시범에 IOC 위원들 탄성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도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 높여



시마란치 IOC 위원장이 이규형 시범감독에게 악수를 건네며 격려하는 등 태권도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마란치 위원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IOC 위원들은 지난 6월 16일 태릉선수촌에서 태권도 국가대표시범단(단장 이규형)의 시범을 관람했다.

IOC 위원들은 품새와 겨루기, 장애물격파 시범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마지막 장애물 격파시범에선 승관을 격파할 때마다 IOC WELCOME(환영) 이라고 쓰인 소형 현수막 3개가 잇달아 내려와 위원들은 탄성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다.



▶겨루기 시범을 보이고 있는 남녀 어린이 시범단의 발차기 모습을 IOC 위원들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IOC 위원들이 태권도 시범에 탄성을 터뜨리며 박수를 쳐고 있다.

어린이들의 신들린 듯한 놀라운 재주 평소의 꾸준한 노력이 맺은 열매



IOC 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등초등학교 시범단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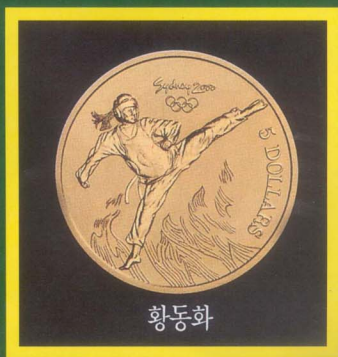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기념주화” 나왔다

태권도 발차기 장면 등이 새겨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기념주화가 선보였다.

IOC 총회 기간에 호주 대사관은 시드니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삼성본관 로비에서 사미란 치 IOC 위원장, 김운용 회장 등 국내외 체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 기념주화 발매식을 개최했다.

기념주화는 금화, 은화, 황동화 등 총 28종이 발행됐는데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첫선을 보이는 ‘태권도 기념주화’가 발매됨으로써 태권도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

▶태권도 발차기 장면이 새겨진 시드니 올림픽 기념주화.



황동화

김운용 회장, 미동초등학교 방문

IOC 위원들에게 선보일 시범 위해 구슬땀 흘리는 시범단 격려

6월 11일 (미동초등학교)

김운용 회장은 IOC 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 미동초등학교를 방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시범 연습에 여념이 없는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을 격려한 뒤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회장은 사미란치 위원장을 비롯해 IOC 위원들이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태권도 시범을 보는 것과 관련해 "2000년 올림픽 이후에도 태권도가 올림픽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형 시범단장에게 금일봉을 건네며 격려하는 김운용 회장.



▼시범단 아린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는 김운용 회장.

미동초등학교 어린이 시범단이 김운용 회장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동유럽 4개국 순회시범 - 태권도의 열기 확산

6월 15일 ~ 28일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은 지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태권도 불모지인 동유럽 4개국을 순회하며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였다. 동유럽 순회시범은 태권도가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에 뿌리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태권도의 보급이 저조한 불가리아, 터키,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태권도를 통한 민간 외교를 펼쳤다. 이번 순회시범은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동유럽 4개국에 태권도의 열기를 확산시켰다.

..... (시범단 명단)

- 단장 : 임춘길 ▪ 감독 : 이규형 ▪ 주무 : 김충효
- 단원 : 김병성, 이훈우, 정재환, 최동성, 고창욱, 성낙훈,
길상배, 허정행, 서상우, 이선우, 이진영, 박웅기,
정선미, 최미정, 성시훈, 박진수, 선승희



슬로바키아에서 시범을 마친 시범단이 어린이 수련생들에게 기념배지를 달아주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터키에서 연습격파 시범을 성공시키고 있는 시범단.



북유럽 4개국 순회시범이 오는 태권도 시범단 협회 임원진들이 장모에 오른 시범단을 배웅했다.

시드니 올림픽 세계예선대회

7월 8일~11일 (크로아티아 포락)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크로아티아에서 벌어진 시드니 올림픽 세계예선대회에서 한국은 남녀 각 2체급 대표가 출전해 경기를 펼친 결과 3체급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경기 첫날 -67kg경기에서 조항미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마지막날 펼쳐진 남자 +80kg경기에서 김제경이 2위, 여자 -57kg경기에서 강해은이 3위를 차지함으로써 3체급 본선진출을 확정지었다.

한편 이번에 탈락한 1체급(-69kg 유영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아시아지역선발전에 다른 체급의 대표 1명을 파견하여 최종 티켓을 따낼 예정이다. (사진=김무천 운영부장)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한 김제경, 강해은, 조항미가 이승만 상임부회장 등 협회 임원과 도경숙태권도원장을 함께했다.



시드니 올림픽 본선



체급별 4명까지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이번 대회는 7개국 233명이 출전해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 여자 -67kg급 경기에서 조항미가 한수 위의 기량을 보이며 체급 정상에 올라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냈다.



◀ 여자 -67kg급에 출전한 조항미에게 김중기 코치가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출전권 3체급 획득

▶ 남자 -68kg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 기뻐하는 선수들.
1위 이란, 2위 호주, 3위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미국 흑인 지도자들, 국기원 방문

미국 흑인지도자들이 지난 7월 1일 국기원을 방문하고 김운용 회장을 예방했다.

이번에 국기원을 방문한 미국 흑인지도자들은 인증평등협의회장인 셸리스킹 3세를 비롯, 래리 그랜트 마틴루터킹 퍼레이드 총재, 베랄딘 인증지위향상협의회장 등 4명과 흑인 대학생 5명, 한인태권도 지도자 4명 등 13명이다.



▲김운용 회장과 태권도 보급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미국 흑인 지도자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강석 관장의 지도로 태권도를 수련해 온 수련생 30여 명이 7월 1일 국기원에서 태권도 지도를 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중주국에서 배웁니다”



제 34회 대통령기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여자부 경기 신설 - 경희대 우승

서울체고 4연패 위업 달성

6월 18~19일 (포항실내체육관)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 34회 대통령기 대회가 전국의 8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경북 포항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남대부, 남자 일반부 경기외에 여자부가 채택돼 부별 최강팀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대회 결과 최초의 여자부 대통령기는 경희대가 차지했고, 서울체고는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고등부 최강의 자리를 고수했다.

한편 웅인대가 처음으로 대통령기를 쟁취하는 기쁨을 맛보았고, 에스원이 남자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웅인대와 경원대가 대학부 결승에 올랐다. 288 동점에서 마지막 경기를 펼친 웅인대 최진규(중)와 경원대 정세웅의 경기는 불꽃튀는 접전의 연속이었다. 최진규가 2-1로 승리를 거둬으로써 웅인대가 우승기를 차지했다.



올해 대통령기의 주안은? 개최식에서 대회를 주관할 경북협회 강석호 회장이 지난해 우승팀으로부터 우승기를 건네받았다.

개회식 모습. 올해 대회에는 남고부 6개팀, 남대부 19개팀, 남자일반부 6개팀, 여자부 20개팀 등 모두 89개팀이 출전했다.



제 3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남고부 결승에 오른 서울체고와 경성공고의 첫 대결은 박영준(경·서울체고)과 정남영(경·경성공고)의 강기로 펼쳐졌다. 막강막하 강기로 22 중전을 이룬 끝에 정남영이 우승을 거두었다.



용인대(대학부) · 에스원

50주년



경원대의 박영수 코치가 작전을 제시하고 있다. 경원대는 대학 강호들을 물리치고 준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남자 일반부 우승을 차지한 에스원의 김세혁 감독이 김순배 부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남고부 시상식 모습. 서울체고는 4년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2위 경성공고 3위 선인고. 감투상은 동천고가 차지했다.

제 3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여저부 결승에 오른 경희대와 이소원, 올해 하반기 국가대표인 신경현(경·경희대)과 블라디슬라프 쿠치마코프의 실체영(이소원)의 매결은 비실한 판사를 끌었다. 힘에서 앞선 신경현이 남달한 실체영을 2:2 동점 끝에 우세승으로 어렵게 승리를 거두었다.



(남자 일반부) 종합우승



▲남자 대학부 시상식에서,
1위 용인대, 2위 경원대,
3위 동아대, 감투상 고려대.

▶경희대 이경호 코치가 노상석
기술심의회 의장으로부터
여저부 우승기를 수상하고 있다.



제 29회 협회장기전국남녀단체대항태권도대회

6월 20일 ~ 22일 (포항실내체육관)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제 2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올림픽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는 유일한 대회인 협회장기대회에는 전국에서 526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룬 결과 지난해 대학부와 여고부 우승팀인 성균관대와 경성여실고가 올해도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2연패의 쾌거를 이룩했다. 또한 동성고, 국군체육부대, 경희대도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가운데 고등부, 일반부, 여자 일반부 정상을 차지했다.

부별 올림픽 4체급 경기

◀지난해에 이어 대학부 정상을 차지한 성균관대 선수들이 김범수 감독을 행가래치며 기뻐하고 있다.

성균관대, 경성

▽대학부 -80g경기 결승에서 계명대의 성지민(청)과 성균관대의 이남열이 치열한 접전 끝에 2-2 동점을 이루어 승부를 가리기 어려웠는데 성지민에게 우세승이 선언되었다.



제 2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단체대항태권도대회

여고부 -57kg급 결승에서 고양중고 김민아(청)가 수원고 조선태미에게 뒷차기 공격을 하고 있다.
유연성이 뛰어난 조선태미는 반격에 성공, 2-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따냈다.

여실고 2연패



▲경북협회 강재권 실무부회장이 여고부 2연패를 차지한 경성여실고 권오민 코치에게 우승기를 건네고 있다.

▶여자일반부 -57kg 결승에서 에스원의 정미나(홍)와 경희대 남보리가 득점을 주고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정미나가 3-2로 승리를 거두었다.





동성고, 국군체육부대,



▲남자 일반부 -58kg 결승전 모습.
국군체육부대 유영택(참)이
영천시청의 이기철을 맞아
뒷차기 등을 성공시키며
4-1로 크게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승완 상임부회장이
남자 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국군체육부대의
황영갑 감독에게
우승기를 건네고 있다.

제 2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단체대항태권도대회

남코부 -11kg경기 결승에서 심안교의 아지정(중)이
한상고의 강기호를 맞아 오른쪽 광각로 합격을
공격하고 있다. 아지정이 5:0으로 승리.

경희대도 정상 차지

▶ 강석호 경복협회장이
고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동성고의 이철주 감독에게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



◀ 대학부와 실업팀이
여자부 최강팀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한판
승부를 펼쳤다.
1위는 경희대,
2위는 에스원,
3위는 용인대가
차지했다.

99년도 2차 고단자 심사



6월 12일 (국기원)

지난 6월 12일 국기원에서는 고단자 심사가 있었다. 6단 103명, 7단 27명, 8단 13명, 9단 23명 등 모두 166명이 응시한 이번 심사에서 이들은 2, 30년간 닦아온 태권도 기술과 정신을 보여주었다.

◀9단 응시자들이 품새실기시합을 치르고 있다. 최덕수 씨(왼쪽)와 양영도 씨(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부의장)의 얼굴은 진지하기만 하다.



요약년의 세월을 태권도 수련으로 단련해온 고단자들이 최고경지의 9단에 응시했다. 이날 응시자 2명이 얻은 국기원 부원장 등 태권도 원로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2급 경기지도자 연수 시행

6월 15일 ~ 7월 9일

국기원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태권도지도자들이 대상으로 2급 경기지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모두 57명이 참가하여 태권도의 이론 및 실기에 대한 지도능력을 키웠다.



총계 2급 경기지도자교육 수료생들이 김은용 회장을 비롯한 태권도 임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